백두-한나

주체112(2023) 5
http://www.paekdu-hanna.com

재중조선인총련합회
旅中朝鲜人总联合会

백두 - 한나
주체112(2023) NO.339









희천제사공장



공장은 명주실생산을 늘이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치밀하게 조직하고있으며 명주실생산의 기본공정을 맡은 조사공들이 집단적혁신을 일으키며 날마다 높은 생산실적을 기록하고있다.



차례 Contents

혁명활동소식
geminghuodongxiaoxi

총련합회소식
CHAOZONGLIANXIAOXI

백두 - 한나
PAEKDU-HANNA

앞표지:
사회주의
번화가
화성거리

김정은

각계각층 동포군중의 무궁한 힘으로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자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２５차 전체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주체１１１(２０２２)년 5월 ２８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１１０돐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８０돐을 혁명적대경사로, 민족최대의 대정치축전으로 성대히 경축한 뜻깊은 해에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２５차 전체대회가 열리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주체조선의 존엄과 무진막강한 위력이 세계만방에 높이 떨쳐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내외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속에 열리는 총련 제２５차 전체대회를 맞으며 대회참가자들을 비롯한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게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마음까지 정히 담아 가장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동포애적 인사를 보냅니다.

우리 공화국의 존엄높은 해외공민단체인 총련을 강화하고 재일조선인운동을 끊임없는 상승일로로 발전시켜나가는데서 총련의 최고결의기관인 전체대회가 차지하는 위치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돌이켜보면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뿌리를 둔 재일조선인운동이 주체의 궤도우에 확고히 들어선 총련결성의 그날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려정에는 계승과 혁신, 전진과 도약의 분수령으로 된 전체대회들이 긍지높이 아로새겨져있습니다.

총련의 창건자이시며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총련에서 전체대회가 진행될 때마다 사랑의 축하문을 보내주시여 재일조선인운동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재일동포들의 행복한 앞날을 따뜻이 축복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주체적해외교포운동사상과 령도를 높이 받들고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이역의 모진 풍상고초를 슬기롭게 이겨내며 전체대회들을 계기로 애국애족의 큰 산을 하나씩 넘어왔습니다.

총련과 재일조선인운동의 전 력사가 험로역경의 가시덤불을 헤쳐야 하는 고행의 련속이였지만 제２４차 전체대회가 있은 때로부터 지난 ４년간은 적대세력들의 가증되는 반공화국, 반총련책동과 세계적인 대류행병의 확산으로 우리 동포들모두가 너무도 많은 고생을 겪어야 했던 엄혹한 시련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형언할수 없는 격난이 중첩되는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사회주의조국과 보조를 같이하면서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의 전구마다에서 혁혁한 승리의 개가를 높이 울리였습니다.

조국래왕이 중단된 렬악한 상황이 지속된 속에서도 자기의 본태를 뚜렷이 과시하며 조국과 민족을 위한 길에 뜨거운 애국지성을 고여온 재일동포들의 숭고한 정신세계에서 조국인민들은 커다란 힘을 얻으며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유산인 총련의 귀중함을 더욱 강렬하게 절감하였습니다.

나는 전대미문의 년대들에 조국의 통일발전과 재일조선인운동의 승리적전진을 위하여 생의 귀중한 모든것을 흔연히 다 바친 한덕수동지, 리진규동지, 서만술동지, 리계백동지를 비롯한 로세대 총련일군들과 유명무명의 １세동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사회주의조국과 운명의 피줄을 잇고 이역의 모든 곤난을 강인하게 인내하며 그 어떤 명예와 보수도 바람이 없이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기 위한 성스러운 길에 깨끗한 량심과 의리를 보석처럼 수놓아가고있는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정의로운 활동을 적극 지지성원해주고있는 일본의 량심적인 인사들과 평화애호적인 인민들, 각국의 외교사절들에게도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와 그리고 나자신의 이름으로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총련과 재일조선인운동은 새 전성기개척을 위한 지난 １０여년간의 투쟁을 통하여 크게 약진하였으며 자체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단계를 벗어나 더 높은 령마루를 향해 나아가는 전면적발전기에 들어섰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열리는 총련 제２５차 전체대회는 강성총련건설의 원대한 포부와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애국애족의 진군을 가속화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뜻깊은 회합으로 될것입니다.

현시기 총련의 기본임무는 각계각층 동포군중의 힘을 하나로 모아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더욱 힘차게 열어나가는것입니다.

위대한 사상과 혈연의 정으로 굳게 뭉친 동포들의 진함없는 힘은 총련과 재일조선인운동

의 영원한 승리적담보입니다.

이것은 총련과 재일조선인운동의 력사가 립증한 절대불변의 진리이며 제２４기 총련사업의 자랑찬 총화이기도 합니다.

총련에서는 애국애족으로 불타는 광범한 동포군중의 무궁한 힘을 유일무이한 원동력으로 하여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승리적으로 열어나가야 합니다.

총련조직앞에 나서는 과업은 첫째로, 총련의 모든 활동을 동포제일주의로 지향시키고 일관시켜나가는것입니다.

동포제일주의는 위대한 주체사상,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재일조선인운동실천에 구현한 사상입니다.

주체사상을 자기의 지도사상으로 하고있는 총련은 마땅히 동포제일주의조직이 되여야 하며 동포제일주의구호를 들고나가야 합니다.

총련의 각급 조직들과 단체, 사업체들은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익의 옹호자, 대변자로서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옹호확대하기 위한 투쟁을 언제나 주선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합니다.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은 피땀으로 총련조직을 일떠세우고 동포자녀들의 배움터를 목숨으로 지켜낸 １세들의 념원을 한시도 잊지 말고 교육권, 기업권, 생활권옹호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야 합니다.

각급 총련조직들과 단체들에서는 권리옹호사업을 애국애족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한 중차대한 문제로 보고 철저히 대응해나가야 하며 동포들의 권익옹호를 위한 대중운동의 폭을 더욱 넓혀나가야 합니다.

총련은 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을 비롯한 재일동포들의 조국래왕을 가로막은 일본당국의 부당한 제재조치를 철회시키기 위한 투쟁도 강도높이 벌려나가야 합니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앞으로도 해외동포권익옹호법에 따라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기 위한 국가적대책을 철저히 세울것이며 동포들의 자주권, 생존권, 발전권을 굳건히 담보하기 위한 특례조치들을 속속 실행해나갈것입니다.

총련의 각급 조직들과 단체, 사업체들은 뜨거운 혈연의 정을 안고 재일동포들의 생활상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봉사복지활동에도 전심전력하여야 합니다.

이역의 동포들을 한시도 잊지 못해하시며 온갖 사랑과 은정을 아낌없이 베풀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뜻으로 귀중한 우리 재일동포들의 복리를 위해 나라의 억만재부를 다 기울여주고싶은것이 나의 진정입니다.

총련은 모든 사업과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동포들의 요구와 리익,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고 동포들의 생활과 밀착된 봉사복지활동을 근기있게 벌려 그 과정을 통하여 총련조직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대중적지반을 크게 넓혀나가야 합니다.

동포생활상담소들의 운영을 정상화하고 결혼, 취직, 고령자, 장애자문제를 비롯하여 동포들의 생활상요구를 성심성의를 다해 풀어주어야 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동포들속에 더 자주, 더 깊이 들어가 동포사회에 덕과 정으로 서로 돕고 위해주는 상부상조의 미풍이 차넘치게 하여야 합니다.

총련은 재일동포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보살피는 사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지진과 해일, 태풍이 자주 발생하는 일본땅에서 동포들의 생명과 건강, 보금자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것보다 더 긴절하고 중요한 사업은 없습니다.

총련에서는 각급 기관들과 학교들, 동포가옥들의 내진견딜성도 전반적으로 료해대책하며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동포들에 대해서는 더 가슴을 조이며 남다른 관심을 기울여 한명의 동포도 불상사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총련의 선제적인 대책과 성심어린 분투에 의하여 세계적인 대류행병으로 인한 동포사회의 피해상황은 비록 크지 않지만 절대로 자만하거나 방심하지 말고 동포들의 생명안전보장에 계속 큰 힘을 넣어 동포들모두가 무병무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총련조직앞에 나서는 과업은 둘째로,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재일조선인운동의 미래를 책임질수 있는 교육, 동포들이 자녀들을 마음놓고 맡길수 있는 교육으로 강화발전시키는것입니다.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은 총련과 재일조선인운동의 생명선이며 재일동포사회의 존립과 장래가 달려있는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입니다.

그러므로 총련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은 철두철미 자기 수령, 자기 조국, 자기 민족을 똑바로 알게 하는데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교육일군대렬을 총련애국위업의 미래를 책임진 직업적혁명가들의 대오로 정예화하는데 주되는 힘을 넣어야 합니다.

재일본조선인교직원동맹에서는 모든 교원들을 새세기 교육혁명방침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의 교육자적자질과 능력을 제고하는데 중심을 두고 지도방조를 알심있게 진행해나가야 합니다.

총련교육일군들은 재일조선인운동의 장래운명을 책임진 남다른 긍지와 사명감을 자각하고 민족교육의 찬란한 개화기를 앞장에서 열어나가야 합니다.

민족교육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세계적

인 교육발전추세에 맞게 교육내용과 방법을 부단히 혁신하여야 합니다.

각급 학교들에서 정치사상교육과 민족성교육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동포들의 사업과 생활에 필수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주는 방향에서 교육내용을 더욱 개선해나가야 합니다.

학생들의 년령심리적특성에 맞는 새로운 교수방법, 다양한 과외교양방법들도 적극 창조하고 서로 공유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총련 각급 학교 학생수를 결정적으로 늘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 조직이 달라붙어 학생인입사업과 조선대학교진학지도사업을 책임적으로 진행하는것과 함께 우리 유치원원아수를 더 늘이고 준정규교육망의 운영과 확대에도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재일본조선인교육회와 각급 조직들과 단체, 사업체들에서는 민족적자존심을 걸고 동포자녀들에게 남부럽지 않은 교육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한 사업을 꾸준하게 진행해나가야 합니다.

아버지회, 어머니회뿐 아니라 총련의 모든 조직들이 민족교육사업을 애국사업의 제 1 순위에 놓고 학교를 사랑하고 도와주는 운동을 일관하게 벌려 민족교육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과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조선대학교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해나가야 합니다.

조선대학교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세워주시고 장중보옥처럼 귀중히 여기시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최고전당이며 세상에 둘도 없는 해외교포대학입니다.

조선대학교에서는 총련애국위업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믿음직한 핵심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키워 재일조선인운동의 백년대계를 억척같이 담보해나가야 합니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항상 조선대학교를 마음속에 품어안고 총련의 계승자육성사업을 물심량면으로 적극 도와주어야 합니다.

총련조직앞에 나서는 과업은 셋째로, 재일동포사회의 민족성을 고수하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나가는것입니다.

민족성은 조국인민들도 강해야 하지만 해외에 사는 동포들일수록 더 강해야 합니다.

민족을 특징짓는 첫째 징표는 소여 민족의 혈통이며 둘째 징표는 언어입니다.

조국 멀리 이역땅에서 사는 동포들에게 있어서 민족의 혈통을 고수하는데 애국의 참모습이 있으며 우리 말을 하는 시간은 곧 애국으로 사는 시간입니다.

총련에서는 동포들사이에 혈연적뉴대를 이어주는 수단인 우리 말과 글을 즐겨쓰도록 하는것이 민족성고수의 출발점, 애국의 첫걸음으로 된다는것을 깊이 새기고 총련조직과 단체, 기관과 학교, 가정을 비롯하여 동포사회 그 어디에서나 아름답고 우수한 우리 말이 랑랑히 울려퍼지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우수한 전통과 문화, 풍습이 면면히 이어지도록 하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총련의 출판선전기관들에서는 우리 민족이 창조한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유산, 단일한 혈통과 고상한 미풍량속을 소개선전하는데 시간과 지면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총련의 새세대들이 단결력과 개척정신이 강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조선민족의 억센 기질과 웃어른을 존경하고 이웃들과 화목하며 부모처자를 사랑하는 우리 민족의 우수한 미풍량속을 순결하게 이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동포가정들에서 예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민속명절들에 민족음식을 해먹는것을 적극 장려하고 우리 학교들에서도 학생들에게 조선옷짓기와 김치담그기를 비롯한 민족료리를 만드는 방법도 잘 가르쳐주며 민족음악무용소조운영도 활성화하여야 합니다.

동포들이 민족옷을 사랑하고 즐겨입도록 하여야 합니다.

조선치마저고리는 타향에서 국기가 없이도 조선사람임을 알게 하는 우리 민족의 상징입니다.

재일조선녀성들과 우리 학교 녀학생들속에서 조선치마저고리를 입는것이 동포사회의 훌륭한 풍조, 하나의 관례로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총련에서는 민족성고수를 전 조직적, 전 동포적인 운동으로 더욱 기운차게 벌려 재일동포들이 세대를 이어가며 이역땅에서 산다 해도 절대로 동화되지 않는 조선의 얼굴, 민족의 얼굴로 각광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총련조직앞에 나서는 과업은 넷째로,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에 부응하여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에 특색있게 이바지하는것입니다.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는 우리 공화국이 력사의 온갖 도전을 과감히 짓부시며 나라의 존엄과 지위를 비상한 경지에 올려세운 자존과 번영의 새시대입니다.

총련의 각급 조직들과 재일동포들은 이런 시대에 사는 공민적긍지와 영예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조국통일과 나라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애국사업에 떨쳐나서야 합니다.

조국통일은 더는 미룰수 없는 민족지상의 과제이며 총련과 재일동포들앞에 나서는 제일 중차대한 애국사업입니다.

총련의 조국통일사업은 본질에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시고 견지하여오신 하나의 조선로선을 옹호하고 관철하

기 위한 성스러운 애국투쟁입니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을 적극 지지옹호하고 그것을 내외에 널리 선전하여야 합니다.

총련은 민족대단결의 기치밑에 《민단》을 비롯한 조직밖의 동포들과의 민족단합사업을 강화하여 통일애국력량을 더욱 증대시키며 그들과의 공동행동, 공동투쟁을 활발히 벌려야 합니다.

총련은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조직들과의 민족적뉴대와 련계를 긴밀히 하여 전민족적인 통일전선을 형성하는데서 해외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담당수행하여야 합니다.

총련은 자주, 민주, 조국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의로운 활동을 적극 지지성원하며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들의 분렬주의책동을 규탄배격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나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 조국은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기에 들어섰습니다.

날과 달이 다르게 시간을 다투며 몰라보게 변모되는것이 사회주의조국의 자랑찬 현실입니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사회주의조국을 견결히 옹호하고 문명부강한 국가건설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재일동포들은 몸은 비록 이역땅에 있어도 언제나 마음속에 조국을 안고 살아야 하며 사회주의조국의 절대적인 지지자, 견결한 옹호자가 되여야 합니다.

건국의 첫 기슭으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우리 공화국을 떠받드는 초석이 되고 대들보가 되여준 우리 인민의 불굴의 군상속에는 재일동포들의 모습도 력력히 새겨져있습니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조국의 강성과 번영에 이바지하여온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 사회주의강국건설에 특색있게 기여하여야 합니다.

총련은 주체혁명위업, 총련애국위업에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대외사업을 능동적으로 벌려나가야 합니다.

현시기 총련대외사업의 기본임무는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밑에 일본을 비롯한 세계각국인민들속에서 우리의 지지자, 동정자대렬을 끊임없이 확대하여 총련과 재일동포사회의 평온과 안정을 보장하는것입니다.

총련은 일본의 각계인사들과의 사업을 신축성있게 벌리고 민주세력들, 조선의 통일을 지지하는 련대성조직들과의 사업을 더욱 짜고들어 광범한 일본인민들속에서 우리 공화국과 총련을 우호적으로 대하는 지지자, 동정자대렬을 계속 늘여나가야 합니다.

각급 조직들과 단체들에서는 지역대외사업에도 응당한 힘을 넣어 지방자치체들이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리익을 옹호하기 위한 총련의 활동을 적극 지지하고 협력해나서도록 하여야 합니다.

총련은 일본주재 외국대표부들과의 사업을 용의주도하게 진행하는것과 함께 국제무대들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우리 공화국의 국익을 견결히 옹호하고 총련조직과 재일동포들의 애국애족활동에 대한 지지찬동의 목소리가 더 크게 증폭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열기 위한 중대한 투쟁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변화된 환경과 시대적요구에 맞게 총련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먼저 주체의 사상론을 확고히 틀어쥐고 재일조선인운동의 전진동력을 배가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합니다.

총련부흥의 새시대에로 가는 지름길은 오직 하나 동포들의 마음을 하나로 움직이고 그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발동하는데 있습니다.

위대성교양, 애국주의교양, 조선민족제일주의교양, 재일조선인운동의 력사와 전통에 대한 교양, 신념교양은 총련사상사업의 기본내용입니다.

총련에서는 새세대들을 비롯한 동포들속에서 위대성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조국 멀리 이역땅에서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사상과 은혜로운 사랑의 력사가 세세년년 줄기차게 흐르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상교양의 내용을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말고 알심있게 진행해나가며 위대성교양을 하면서도 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을 하고 조선민족제일주의교양을 하면서도 재일조선인운동의 력사와 전통에 대한 교양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애국주의교양을 우리 국가제일주의와의 밀접한 련관속에서 실속있게 진행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총련의 각급 조직들과 기관들에서 민족최대의 명절들과 공화국창건기념일, 총련결성기념일 등을 맞으며 실정에 맞게 국기게양식을 전통화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각급 학교들에서도 우리 국가의 상징물들에 대한 교양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입학식과 졸업식을 비롯한 여러 계기들에 학생들이 애국가를 부르며 자기 손으로 국기도 띄워보게 하여 그들의 소중한 꿈이 언제나 사회주의조국과 잇닿아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본주의일본땅에서 진행되는 총련의 선전문화사업에서 공식화된 방법이나 만능의 처방이란 있을수 없습니다.

총련에서는 사상사업에서 형식주의를 철저히 근절하며 동포들이 호응하고 공감하는 교양방법들을 끊임없이 탐구적용하여야 합니다.

출판선전물들의 침철력과 견인력을 부단히

높여나가야 합니다.

조선신보사와 조선통신사에서는 신문과 인터네트를 통하여 더 많은 동포들에게 조국소식, 동포소식을 신속히 전해주며 우리의 문화가 중단없이 파급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과 금강산가극단을 비롯한 선전문화담당기관들과 예술단체들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이며 지방가무단들의 공연과 각종 문예소조활동을 활발히 벌려 동포사회가 우리 노래, 우리 장단, 우리 춤으로 흥성이게 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총련중앙을 비롯한 각급 조직들과 단체, 사업체들을 일심단결의 성새, 애국애족의 믿음직한 성돌로 굳건히 다져야 합니다.

총련을 일심단결의 성새, 애국애족의 믿음직한 성돌로 다진다는것은 그 어떤 외부적공격과 비난으로부터 사회주의조국을 견결히 옹호하고 동포들의 삶과 행복을 굳건히 지켜내는 철옹성으로 만든다는것을 말합니다.

재일조선인운동의 참모부인 총련중앙상임위원회의 지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합니다.

총련중앙은 조직안에 주체의 사상체계, 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제일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모든 사업과 활동을 오직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대로만 드팀없이 조직진행해나가야 합니다.

각급 조직들과 단체, 사업체들에 대한 정책적지도를 강화하며 조직내부사업에 각별한 힘을 넣어 대오의 일심단결을 강화하고 핵심의 대가 굳건히 이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총련 현본부들의 조직장악력과 실천력을 부단히 높여야 합니다.

현본부는 재일조선인운동의 지역적지도단위이며 총련중앙의 지역별 보좌단위입니다.

현본부들에서는 아래단위들에 대한 사업체계를 더 정연하게 세우고 지도방조사업을 일상적으로 진행하여 중앙의 결정과 지시가 훌륭한 결실을 맺도록 하여야 합니다.

본부들의 지역적편차를 줄이기 위한 사업도 목적의식적으로 진행하여 중소본부들이 일떠서고 용을 쓰는 새 모습을 창출하여야 합니다.

지부중시, 분회중시사상을 확고히 틀어쥐고 모든 기층조직들을 애국애족의 광채를 눈부시게 뿌리는 생기발랄한 산 조직으로 강화발전시켜야 합니다.

지부를 각계층 동포들속에 든든히 발을 붙인 지부, 동포핵심들이 주동이 되여 움직이는 지부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부들에서는 비전임일군들을 적극 인입하여 활동력을 더욱 높이며 지부경쟁운동을 지속적으로 벌려 모든 지부들이 전체대회결정관철의 실제적인 집행단위로서의 사명을 다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동포들의 기본생활단위이며 말단기층조직인 분회가 힘을 내야 전 조직이 강화되고 동포사회의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되여나갈수 있습니다.

분회건설의 가장 리상적인 목표는 위대한 진리로 굳게 결합되고 따뜻한 정이 흐르는 따뜻한 동포동네로 만드는것입니다.

총련에서는 분회대표자대회를 전체대회 못지않게 중시하며 분회일군들의 정치의식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심화시켜 모든 분회를 건강하고 혈기왕성한 조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분회들에서는 분회강화를 위한 4대과업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애국애족창조운동을 일관성있게 벌려 동포들이 사는 방방곡곡에서 화목과 단합, 애국애족의 열기가 끊임없이 고조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총련의 계층별 군중단체들의 전투력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합니다.

자본주의일본땅에서 가업과 생존의 헐치 않은 부담을 걸머지고도 오로지 조국과 민족을 위한 길에 자신의 귀중한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 동포상공인들과 새세대 청년들, 동포녀성들의 뜨거운 진정과 애국심을 떠나서 총련의 번영과 흥하는 동포사회를 생각할수 없습니다.

총련의 군중단체들에서는 사상교양단체로서의 임무를 항상 자각하고 모든 회원, 동맹원들이 전세대들이 발휘한 숭고한 정신을 꿋꿋이 이어나가도록 하는것과 함께 동포들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대중운동을 왕성하게 벌리는 과정을 통하여 자기의 대오를 백배해나가야 합니다.

동포상공인들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는 총련의 기본군중이며 재일조선인운동의 주력군입니다.

상공회를 비롯한 경제단체에서는 동포상공인들의 기업을 보호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적실한 대책을 따라세우며 세계경제발전동향과 추세를 민감하게 포착하고 전문화수준을 높여 동포들의 상기업활동을 실리가 나게 방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재일본조선청년상공회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무어주신 젊은 상공인들과 학부형세대들을 망라하고있는 재일조선인운동의 주력군후비대오입니다.

청년상공회는 결성초기에 들었던 구호 《유족한 동포사회를 위하여》, 《꽃봉오리들의 미래를 위하여》를 청상회운동의 기본종자, 영원한 주제로 들고나가야 합니다.

청년상공회에서는 새 교복을 떨쳐입고 우리학교로 가는 재일조선학생소년들의 밝고 명랑한 모습에 총련의 미래가 비낀다는것을 분분초초 명심하고 민족교육지원사업을 계속 선두에서 주도해나가야 합니다.

총련부흥의 새시대에로 향한 영예로운 진군길에서 선봉대, 돌격대의 기치는 마땅히 동포청년들이 들어야 합니다.
재일본조선청년동맹에서는 각급 조직들의 자립성과 독자성을 높이는데 중심을 두고 동포청년들의 심리적특성에 맞는 다양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동포사회를 젊음이 약동하는 청년판, 새세대판으로 들썩이게 하여야 합니다.
재일본조선류학생동맹에서도 일본대학들에 다니는 동포청년학생들과의 사업을 꾸준하게 벌려 그들이 조선의 넋, 민족의 얼을 지니고 살아나가도록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은 전체 재일동포녀성들의 권리와 리익을 대표하는 총련의 가장 큰 군중단체입니다.
자녀들에게 조국애를 심어주고 민족적자존심을 키워주는 첫 스승도 동포녀성들이며 동포자녀들의 아름다운 꿈을 지켜 민족교육의 화원을 제일 품을 들여 가꾸는 원예사도 다름아닌 재일조선녀성들입니다.
녀성동맹 각급 조직들에서는 우리 학교를 거점으로 모든 애국애족활동을 조직전개해나가며 재일동포사회를 민족성이 강하고 화기가 넘치는 하나의 대가정으로 만드는데 한몫 단단히 하여야 합니다.
녀성동맹에서는 애국사업실천에서 단련육성된 젊은 동포녀성들을 적극 내세워 그들이 재일조선인운동의 한쪽수레바퀴를 대를 이어 억세게 떠밀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재일조선인운동의 지휘성원인 총련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작풍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켜야 합니다.
총련일군들은 재일동포들의 운명을 스스로 걸머지고 애국의 길에 나선 직업적인 정치활동가들이며 우리 조국이 제일로 아끼고 내세우는 해외혁명동지들입니다.
우리 조국은 총련일군들에게 일본에 있는 조선사람들의 존엄과 운명을 전적으로 맡기고있으며 모든 일군들이 비상한 각오와 열정을 안고 조국과 민족이 부여한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가기를 기대하고있습니다.
총련의 모든 일군들은 군중관점을 바로세우고 각계각층 동포들과의 사업을 뺴심을 들여 잘해나가야 합니다.
총련일군들은 동포대중을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여기고 하늘처럼 신성히 떠받들며 언제나 동포들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사업해나가야 합니다.
늘 동포들속에 있으면서 혈육들과 집안일을 의논하듯이 동포들과 무릎을 맞대고 제기되는 문제의 해결방도를 찾으며 그들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천사만사를 풀어나가는것을 습벽화하여야 합니다.
자기 관하 동포들의 마음을 속속들이 헤아리고 그에 맞게 천가지, 만가지의 적중한 사업방법을 다 찾아 군중과의 사업을 참신하게 진행해나가야 합니다.
총련일군들은 동포들을 무한히 존대하고 존경하여야 하며 동포군중을 거울로 삼아 늘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절대로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총련의 모든 일군들은 《동포들을 위하여 멸사복무하자!》는 구호를 더 높이 들고 동포들의 행복한 생활과 안위를 위해 혼심을 다 바치는 성실하고 근면한 심부름군이 되여야 합니다.
동포들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헌신, 일군들과 동포들사이에 오고가는 따뜻한 정이 곧 총련의 힘입니다.
총련일군들은 동포들의 요구가 백가지, 천가지이라고 해도 어느 하나도 가볍게 대하지 말아야 하며 그 모든것을 최상의 수준에서 해결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여야 합니다.
총련일군들은 홀로 고독하게 살아가는 동포들에게는 효성이 지극한 자식이 되여주고 생활상고충을 겪는 동포들에게는 자별한 형제, 자매가 되여주며 동포들이 더워하면 산들바람이 되여주고 추워하면 우등불이 되여주어야 합니다.
총련일군들은 어려운 동포일수록 더 왼심을 쓰고 이그러진 동포일수록 더 가까이 다가가 그들의 생활상고충과 마음속응어리를 풀어주어야 하며 높은 인격과 넓은 도량으로 동포모두를 품어안아 애국애족의 한길로 인도하여야 합니다.
총련의 전체 일군들은 우리 동포들의 모든 꿈과 리상을 다 이루어주고싶어하는 조국의 간절한 당부를 정히 새겨안고 동포들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헌신적복무정신으로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더 힘차게 매진해나가야 합니다.
총련중시, 해외동포중시는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국책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유산인 총련을 더없이 소중히 여기고 백방으로 보호할것이며 각별한 정을 기울여 《조국의 사랑은 따사로워라》의 노래가 주체적해외교포운동사와 더불어 영원히 울려퍼지게 할것입니다.
나는 모든 대회참가자들이 총련부흥의 휘황한 설계도를 따라 귀중한 우리 동포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우리 후대들을 위하여 더욱 용기백배 정진해나아가리라는것을 굳게 믿으면서 총련 제２５차 전체대회가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의 더 높은 봉우리를 향해 돌진하는 위대한 전환의 리정표로 빛나게 장식되기를 바랍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정찰위성발사준비위원회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국방력발전 5대중점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위적방위력강화투쟁이 강력히 전개되고있는 가운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우주개발국과 국방과학연구기관들, 각급 대학 및 과학연구기관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망라된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를 위한 비상설위성발사준비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결속단계에서 힘있게 추진해나가고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김정은**동지께서 5 월 16 일 비상설위성발사준비위원회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와 과학교육부의 주요간부들과 우주개발국, 비상설위성발사준비위원회 성원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김정은**동지께서는 비상설위성발사준비위원회의 사업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총조립상태점검과 우주환경시험을 최종적으로 마치고 탑재준비가 완료된 군사정찰위성 1 호기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나라의 군사기술력을 획기적으로 상승시키기 위한 중대사업실천과정에서 비상설위성발사준비위원회가 맡은 임무와 역할을 책임적으로 수행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사정찰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하는것은 조성된 국가의 안전환경으로부터 출발한 절박한 요구이며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최우선적인 국방력강화정책의 정확한 실천과정인 동시에 나라의 우주군사 및 과학기술개발에서 뚜렷한 진일보로 된다고 하시면서 우주연구분야에서 계속해 달성해야 할 전략적목표들을 구체적으로 천명하시였다.

경애하는**김정은**동지께서는 군사정찰위성보유의 전략적성격에 대하여 재삼 강조하시면서 미제와 남조선괴뢰악당들의 반공화국대결책동이 발악적으로 가증될수록 이를 철저히 억제하고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주권과 정당방위권은 더욱 당당히, 더욱 공세적으로 행사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김정은**동지께서는 비상설위성발사준비위원회의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현철해동지 서거 1돐에 즈음하여 묘소에 꽃송이를 진정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현철해동지의 서거 1돐에 즈음하여 5월 19일 신미리애국렬사릉을 찾으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상 강순남동지가 동행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참다운 혁명가적품성과 고결한 인간미를 지니고 당의 위업에 무한히 충직하였으며 조국과 혁명,인민을 위하여 자그마한 가식이나 사심도 없이 헌신한 혁명전사의 진실하고 결곡한 모습과 값높은 생을 회억하시며 현철해동지의 묘소에 꽃송이를 진정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아들이며 주체혁명이 낳은 특출한 충신원로인 현철해동지를 추모하여 묵상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나라가 최악의 국난을 이겨낼 때에도, 국가방위력강화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갈 때에도 언제 한번 잊으신적 없는 사랑하는 전사,항상 곁에서 힘을 주고 용기를 주던 현철해동지의 모습을 보고 또 보시며 오래도록 심중의 대화를 나누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혁명위업을 위한 길에 한생을 바친 로혁명가의 공적은 우리 당과 국가의 력사와 더불어 불멸할것이며 현철해동지는 우리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의 심장속에 영원히 함께 있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애국렬사릉의 추모비앞에서 조국청사에 수놓아진 렬사들의 고귀한 삶이 후세토록 존경과 명예의 단상에서 영생하기를 기원하시며 숭고한 경의를 드리시였다.

총련합회소식

chaozonglianxiaoxi

동족대결에 피눈이 되여 날뛰는 윤석열역적패당은 전체 조선민족의 저주와 규탄속에 파멸을 면치 못할것이다

며칠전 윤석열역적패당이 미국에서 그 무슨 《워싱톤선언》이라는것을 발표하고 조선반도 정세를 위험천만한 상태로 몰아가고있다는 보도에 접한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전체 성원들은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고있다.

《워싱톤선언》이라는것은 미국 바이든정부에 있어서 그 어떤 원가도 거의나 들이지 않은, 주구를 달래기 위한 한갖 얼림수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어리석기 짝이 없는 윤석열역적패당은 《워싱톤선언》을 자기가 미국방문에서 거둔 가장 큰 《성과》로 묘사하면서 《전례없는 안전공약》을 얻었다고 주장하고있다.

간과할수 없는것은 늙다리 대통령 바이든이 그 누가 들어도 정말 제정신을 가지고하는 소리인지, 아니면 제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가는지도 모르는 치매환자가 하는 소리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그 무슨 《정권종말》이라는 망발을 내뱉은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끊임없이 감행되는 미국의 핵전쟁도발책동에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라는 대응조치를 취할것이라는데 대하여 대내외에 명백히 천명한바 있다.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평화파괴세력인 미국과 그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어리석은 윤석열역적패당은 겁이 없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무식하다 못해 너무 용감하다고 해야 할지 감히 우리 공화국을 상대로 수많은 핵전략자산들의 지속적인 전개계획, 빈번한 합동군사연습의 강화를 골자로 하는 《워싱톤선언》을 채택한것이다.

섶을 지고 불속에 뛰여드는 격이 아닐수 없다.

한치앞도 내다 못보고 헤덤비는 미국과 윤석열역적패당이 조작발표한 《워싱톤선언》은 우리 공화국으로 하여금 핵전쟁억제력제고와 특히는 억제력의 제2의 임무에 더욱 완벽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였다.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전체 성원들은 가장 적대적이고 침략적인 행동의지가 반영된 극악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집약화된 산물인 《워싱톤선언》을 철저히 반대배격한다.

윤석열역적패당이 온 겨레의 한결같은 저주와 규탄을 외면하고 어떻게 하나 무너져가는 《정권》을 하루라도 더 연명해보려고 미국의 바지가랭이를 붙들고 구걸질을 일삼을수록 력사의 심판대에 오를 날은 더 빨리 다가오게 될것이다.

언제나 조국인민들과 심장의 박동도 숨결도 같이 하고있는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전체 성원들은 미국과 괴뢰패당이 감히 우리 조국땅의 풀 한포기라도 건드린다면 절대 용서치 않을것이며 씨도 없이 쓸어버릴것이다.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주체112(2023)년 5월 5일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서한학습모임 단동에서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 25 차 전체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서한 **《각계각층 동포군중의 무궁한 힘으로 총련부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와 《4.24 교육투쟁》관련 학습모임을 5 월 11 일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단동시 경제인들이 진행하였다.

모임에는 리순남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회장을 비롯한 경제인련합회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 25 차 전체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서한을 김영옥위원과 양원회원이 랑독하고 리설희회원이 《4.24 교육투쟁 》관련 학습자료를 랑독하였다.

리순남회장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 25 차 전체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서한을 학습하면서 우리 동포들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사랑을 다시금 심장깊이 느낄수 있었다, 노래를 하나 부르고 말을 한마디 해도 조선민족의 넋을 지니고 살아야 한다는것을 더욱 깊이 자각하게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서한을 심장으로 받들고 애국애족의 한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김영옥위원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 25 차 전체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서한을 받아안았을 때의 그 감격을 영원히 잊을수 없다, 지금껏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의 해외공민된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수행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하지만 돌이켜보면 별로 크게 해놓은 일은 없다고 하면서 앞으로 남은 여생을 조국을 위한 길에 깡그리 다 바쳐나가겠다고 결의하였다.

안미자명예회장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서한에서 재일동포들이 일본땅에서 살아도 조선사람답게 떳떳이 살아갈수 있는 명확한 방향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조국도 지금 어려운



시기이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재일본동포들의 민족교육사업을 위해 사랑의 장학금을 해마다 보내주고 계신다, 정말 우리 경애하는 원수님 같으신 분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이처럼 위대한 분을 우리 모두의 어버이로 모시고 사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새기고 조선사람답게 언제 어디서나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겠다고 하였다.

주계숙위원은 서한의 매 구절구절은 정말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가 사업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구체적인 사업방향과 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주고있다,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의 한 성원으로서 조직을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나가야겠다는 결의를 다지게 된다고 하였다.

왕해영회원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서한을 해외에서 사는 해외동포 모두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서한으로 간직하고 조국을 사랑하고 조국을 위해 열심히 일해나가야겠다는 결의를 다지게 된다고 하였으며 장봉해회원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서한을 받아안고 정말 가까이 있는 자식보다 멀리에 있는 자식을 더 마음쓰며 돌보아주는 친어버이사랑을 그대로 느낄수 있었다, 앞으로 어디서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오직 조국을 받드는 애국충정의 한길을 변함없이 걸어나가겠다고 하였다.

민병해회원은 지금 악성전염병위기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있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서한에서 밝혀주신대로 언제나 조직을 믿고 조직

의 두리에 굳게 뭉쳐 남은 인생을 조국을 위해 일해 나가겠다고 하였으며 박진남회원은 이역에 살고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은 조국이다, 이번 서한학습을 통하여 이역의 우리 동포들을 언제나 따뜻이 품어안고 보살펴주는 조국의 사랑을 다시금 가슴깊이 새기게 되였다, 앞으로도 언제나 조국만을 믿고 따르며 조국인민들과 한마음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을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겠다고 결의다지였다.

리설희회원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서한에서 동포상공인들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재일본조선인운동의 기본군중이며 주력군이라는 최상의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의 한 성원으로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고 어머니조국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찾아함으로써 경제인으로서의 자신의 사명과 역할을 다해나가겠다고 하였으며 김명옥, 양원회회원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 25 차 전체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서한은 우리 재중동포 모두에게 보내주신 서한이라고 하면서 서한에서 제시된 과업관철을 위해 조직의 두리에 굳게 뭉쳐 누구보다 앞장에서 열심히 일해나가겠다고 결의하였다.

이날 학습모임에 참가한 전체 경제인들은 간악한 일본반동들이 재일본동포들에게 혹심한 민족차별정책과 악랄한 파쑈적탄압책동을 감행한데 대해 치솟는 분노를 안고 준렬히 단죄규탄하면서 일본반동들이 아무리 발악하여도 《4.24 교육투쟁》의 정신을 더욱더 배가하며 총련부흥의 새시대, 동포사회의 밝은 미래를 대표하는 민족교육의 발전을 위해 힘차게 투쟁하고있는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불굴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적인사를 보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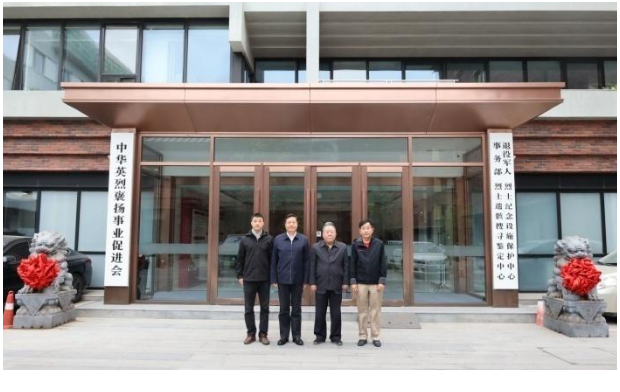
중남지구협회 백경헌회장이 중화영렬포양사업촉진회 새령도성원들과 면담진행

백경헌 중남지구협회회장이 새로 선출된 중화영렬포양사업촉진회(략칭-영촉회) 새 령도성원들을 만났다.

작년 4월, 중화영렬포양사업촉진회에서는 제2차회원대회를 열어 새 령도성원들을 선출하였다, 중화영렬포양사업촉진회 퇴역군인사업부렬사기념시설보호중심 주임 리중수(李中水)가 새 회장으로 임명되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는 오래전부터 중국혁명



렬사들의 영웅사적을 선전하고 혁명렬사가족들을 돌보며 혁명렬사유해를 발굴하고 검증하는 사업에 주력하는 중화영렬포양사업촉진회와 협조관계를 유지하고있다. 총련합회의 협조밑에 중화영렬포양사업촉진회는 여러차례 중국인민지원군로병들과 렬사가족 및 사회각계인사들을 망라하는 조선방문대표단을 조직하여 조국에 있는 상감령을 포함한 지원군렬사릉원들을 찾아 성묘활동을 진행하였다.

백경헌중남지구협회회장은 새로 선출된 중화영렬포양사업촉진회 새령도성원들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지난시기 걸어온 로정들을 돌이켜보면서 조중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앞으로 두 단체에서는 손을 더 굳게 잡고 지원군렬사들을 위한 사업에 함께 노력해나가자고 하였다.

총련합회 본부에서 흑룡강성 칠대하시에 대한 공민실태료해사업 진행

최수봉 제1부의장

5월 10일 나는 동주봉사무국장과 함께 칠대하시에 대한 공민실태료해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심양에서 동북쪽으로 달리는 고속렬차에 몸을 실었다.

코로나영향으로 오래동안 먼길을 떠나지 않아서인지 마음이 한결 상쾌하였다.

장춘시, 할빈시, 목단강시 등 13개 시, 현을 경과하며 질풍같이 내달리는 고속렬차는 1000여키로메터 구간을 여섯시간내에 목적지에 도착하며 중국 고속렬차 전성기를 뽐내는 듯 싶었다.

시속 300키로 속도로 달리고 달려도 끝이 보이지 않는 비옥한 농경지들에 강냉이 파종은 이미 끝마쳤고 논밭들에는 모내기 준비작업이 한창이였다.

이전에는 농망계절이 되면 밭머리에 농작물에 덮는 비닐막이 사방에 날리고 농촌마을들도 지저분한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하지만 최근년에 들어와 중국 당과 정부에서는 해다마 문명촌건설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므로써 농촌마을은 일신되였을뿐아니라 농민들의 문명의식도 전변되면서 매개 가정들에 분배된 밭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우게 보이였다.

렬차는 어느덧 칠대하시 서역에 도착하였다. 현대적 미감에 맞게 건설된 이 역전은 칠대하시와 발리현 승객들이 다 덕을 볼수 있게 칠대하시와 발리현 중간위치에 자리잡고 있었다.

발리현은 흑룡강성내에서 조선족학교 교학질이 높아 소문난 현성이며 또한 동주봉사무국장의 고향이다. 동주봉사무국장의 동창생이 차를 몰고 역전에서 우리를 마중하였다. 우리는



호텔에 짐을 풀고 직접 발리현 장정애지부장의 집으로 갔다. 장정애지부장이 살고 있는 집은 발리현에서 제일 높은 고층건물이라고 한다. 장정애지부장은 갑자기 우리를 보니 너무도 뜻밖이여서인지 한참동안이나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우리가 그의 침대옆에 다가가 손을 꼭 잡고 건강상황을 료해하였다. 그때에야 장정애지부장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표정을 내며 우리 둘의 손을 더 꽉 잡고 거듭 고맙다고 머리를 끄떡이는것이였다. 우리는 장정애지부장이 뇌출혈로 생명이 위태롭다는 소식을 받고도 코

로나때문에 병문안도 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연을 이야기 하면서 우리가 최은복의장동지의 특별 위임을 받고 이렇게 찾아왔다고 하였다. 장정애지부장은 또다시 고맙다는 형용을 하였다. 비록 코로나시기에 발병하여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수술하고 치료를 받으며 집에서 침대생활을 하고 언어 표달에 곤난을 겪고 있지만 정신상태와 얼굴 혈색은 참 좋아보였다.

남편 김형렬선생은 조선족마을 영안촌에서 근 20년동안 부기사업을 해온 촌 간부였다. 마음씨도 곱고 지식도 있어보였다. 지난시기 김형렬선생은 자기맡은 촌간부사업이 바쁨에도 불구하고 안해의 사업을 협조하여 발리현 조선공민들속에 제기되는 일들을 많이 도와준 고마운 공민가족이고 부인을 지극히 사랑하는 훌륭한 남편이기도 하다. 또한 가정을 떠나 3년 넘도록 어머니의 곁을 지키면서 하루 3끼 어머니가 즐기는 음식들을 챙겨주고 대소변을 받아내면서 효도하는 맏딸이 있어 장정애지부장은 매우 행복해보이였다.

우리는 장정애지부장과 회포를 나누면서 총련합회의 사업정형도 소개해주고 앞으로 해야할 일들, 그리고 발리현 공민들의 실태도 료해하였다.

이튿날 오전 볼일이 있어 청도에서 화남현에 온 칠대하시 김수균지부장은 딸의 차에 앉아 발리현에 도착하였다. 우리는 서로 인사를 나누고 칠대하시로 떠났다.

칠대하는 석탄으로 살고 석탄으로 흥하는 신흥공업도시이다. 1958년부터 개발건설하고 1983년도에 성할시(省辖市)로 승급하였으며 세개구(桃山区, 新兴区, 茄子河区)에 1현(勃利县), 1장(金沙农场), 1개 성급경제개발구가 있고 총인구는 100여만이다. 석탄도시여서 원래는 도로에서 차가 달리면 뒤차가 앞차를 보지 못할 정도로 검은 석탄먼지가 날리여 공기가 좋지 않다고 소문난 도시였지만 지금은 도로량옆에 자정향나무를 비롯하여 보기 좋은 가로수들을 많이 심고 도로에 떨어진 석탄먼지를 제거하는 청소차가 자주 다니고 있으므로 도시는 매우 깨끗한 감이 들었다.

또한 칠대하지구에는 석탄, 금, 흑연(石墨), 대리석, 벤토나이트를 비롯하여 10여종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가지고 있고 원 길동성위 (吉东省委), 항일련군 제2로군 본부가 자리잡고 있는 지구로서 동북항일련군 제일 활력있고 투쟁기간이 제일 길며 면적이 제일 큰 항일근거지이였다. 칠대하지구는 "국가중점고수준체육후비인재기지" 이고 장걸, 양양, 왕몽, 범가신 등 10명의 세계빙상속도경기 1등상, 칠대하시 선수들이 세계급금메달 총169개를 수여받았으며 전국 유일 동계단일항목국가훈련기지이므로 사람들은 흔히 칠대하시를 빙성(冰城)이라고도 부른다.

우리는 어느새 칠대하시에 도착하였다.

우리가 칠대하시 김금자공민이 지정한 곳에 도착하니 칠대하시 공민 다섯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 인사를 나누고 공민들의 실태를 료해하였다. 칠대하시에는 우리 공민 총 6명이 살고 있다. 공민들이 전부 사회보장을 받고 있는데 칠대하시 사회보장국에서는 특수한 정황을 특수하게 처리하는 방식으로 령활성있게 지방은행통장으로 공민들의 사회보장을 제때에 받을수 있게 해주었다.

김수균지부장은 올해 89살인데 청도시 딸집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번에 김수균지부장이 볼일이 있어 딸과 함께 화남현에 왔으므로 우리와 만나게 된것이다. 그의 건강상태는 좋아보였다. 하지만 나이가 많으므로 다리를 잘 쓰지 못해 딸이 밀차로 모시고 다니고 있다. 우리는 김수균지부장의 현 실정을 고려하여 칠대하시 새로운 책임자를 추천해보라고 공민들에게 말하였다. 김수균지부장은 물론 기타 공민들도 이구동성으로 김금자공민을 책임자로 추천하였다. 김금자공민은 1953년생인데 성격이 활달해보이고 칠대하시 교통국, 광무국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공민이다. 김정자공민은 공민들이 자기를 이렇게 믿는데 공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보겠다고 쾌히 응해나섰다.

우리는 체류기간 발리현 공안국출입경관리대대와 칠대하시 공안국출입경관리국에 찾아가 우리가 장악한 공민명단과 출입경에서 장악한 공민명단과 주소, 전화번호를 재확인해보았다. 출입경관리부문에서도 외국인들을 관리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총련합회에서 지방 조선공민들의 등록사업을 진행하는데 적극 협조해나섰다.

우리는 발리현과 칠대하시에 대한 공민실태

료해사업을 원만히 끝마치고 년로한 김수균지부장을 모시고 그가 잠시 체류하고 있는 화남현까지 모셔다 주고 이튿날 화남역에서 김수균지부장과 작별하고 심양으로 향하는 고속렬차에 몸을 실었다. 김수균지부장이 밀차에서 우리를 향해 손을 흔들며 아쉬워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김수균지부장과 같은 고령 책임자들을 언제 다시 만날수 있겠는가 하는 섭섭한 심정을 감출수 없었다.

김수균지부장은 1935년생이며 전쟁로병이다. 그는 칠대하시 광무국에서 전동기 전문가로 일하였다. 한평생 자기 직장에서 모범적으로 일해왔으며 칠대하시 공민들을 위해 마음을 많이 쓴 로지부장이다. 지금 년세가 많아 몸은 비록 불편하지만 칠대하시 도산광1중 영어교원으로 일하다가 퇴직한 딸과 칠대하시 교통국에서 퇴직한 사위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김수균지부장은 자기에게 효도하는 딸과 사위가 옆에 있어 만년생활이 아주 다채롭고 행복한 느낌이였다. 김수균지부장은 자기는 지금 로간부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며 우리에게 딸과 사위를 많이 자랑하였다.

그렇다.

김수균지부장과 장정애지부장과 같이 마음속에 조국을 담고 공민사업에 한생을 다 바친 그들에게 총련합회에서 더 많은것을 부여해주지 못하는것이 많이 안타깝지만 그들에게 효도하는 자식들이 있어 만년생활을 누리는 그들의 행복넘친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조여든 마음이 좀 풀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고마운 조국에 인사 드린다

한달전, 장춘에서 살고있 류선욱우리공민이 본부에 찾아와서 자기가 아프리카에서 겪었던 풍상고초를 이야기하면서 위급할때 도움을 준 총련합회에 감사를 드린다면서 감사편지를 본부에 바쳤다. 총련합회 동주봉사무국장과는 면목이 있으나 기타 일군들과는 초면이였다.

류선욱공민은 2021년에 잘 아는 친구들의 연줄로 머나먼 아프리카대륙의 르완다라는 나라에 가서 장식재료상점을 경영하기 시작하였다, 르완다는 탄자니아, 꽁고, 우간다, 부룬디에 둘러싸여 있는 내륙국가로서 면적은 2만6338평방키로메터이고 인구는 1266만인데 1994년에 종족살륙으로 백만의 사망자를 내여 세계를 놀래웠다.그후 식민지후과를 가시면서 사회가 안정되고 경제도 발전하면서 중국인들도 르완다에 가서 장사를 하고있다. 말과 글을 모르는 류선욱공민은 르완다에서 많은 고생과 애를 쓴 덕에 장사를 유지할수 있었는데 갑자기 페암진단을 받아 가족이 있는 중국으로 돌아가서 치료를 받으려 하였다. 공교롭게도 이때가 코로나전염병이 한창 기승을 부리던 때여서 여러나라에서 출입국통제가 심하였다. 르완다에서 중국장춘으로 오려면 에집트를 경유하여 중국항주로 와서 다시 장춘으로 들어와야 하였다. 그런데 에집트를 경유하는 비자를 내자면 우간다에 있는 우리 조선대사관에서 르완다에 있는 에집트대사관에 문건을 보내여야만 류선욱공민의 에집트경유비자수속을 밟을수있었다.

돌아오기가 이렇게 복잡하여 절망에 빠진 류선욱공민은 우리 재중조선인총련합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긴급전화를 걸어왔다.

우리 공민이 이국만리에서 고통을 겪는 사실에 접한 총련합회 사무국에서는 급히 문건을 작성하여 심양주재 조선총령사관에 제기하고 총령사관에서는 조국외무성에 급히 각서를 보내였다.조국 외무성에서는 우간다주재 조선대사관에 통보하여 처리하게 하였다,

해외동포들에 대한 조국의 지극한 관심과 사랑의 손길이 있어 류선욱공민은 엄중한 코로나 전염병사태속에서도 에집트에 가서 핵산검사를 하고 한주일간 관찰을 마치고 마침내 에집트에서 중국항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할수 있었다. 중국항주에서 다시 핵산검사를 하고 한주일간 격리를 하고 장춘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병치료를 할수 있게 되였다.

그는 집으로 돌아올때 정말 곡절이 많았다면서 조국과 총련합회에서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영어를 할줄도, 들을줄도, 쓸줄도 모르는 처지에서 머나먼 아프리카에서 죽었을것이라면서 그때의 막연하고 서럽던 심정을 정말 말로 형언하기 힘들다고 하면서 진심으로 조국과 총련합회에 감사를 드린다고 연신 인사를 하였다.

벌써 와서 인사를 하여야 하였는데 돌아와서 먼저 병치료를 하느라고 늦었다면서 총련합회덕에 지금은 치료를 하여 병이 많이 호전되였다고 웃으면서 말하였다. 총련합회 일군들이 류선욱공민을 축하해주었다. 류선욱공민은 감사의 인사를 거듭 표하면서 병치료를 잘해서 완쾌되면 공민활동에 적극 참가하여 조국과 총련합회의 은정에 보답하겠다고 격정을 토로하면서 결의를 표시하였다.

인정으로 사업하는 목단강지구협회 일군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김연주국장

목단강지구협회산하에는 목단강시지부, 해림시지부, 녕안시지부, 계서시지부 등 9개 지부가 있다. 목단강지구협회 남초월회장을 비롯하여 산하지부장들은 공민들의 정당한 권익을 위하여 해당관계부문에 자주 찾아가 공민들의 생활상애로를 해결해주고있다. 특히 남초월회장은 해당부문과 자주 련계소통하면서 공민들의 생활상애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뛰여다니면서 사업하고있다.

며칠전, 목단강지구협회일군들인 남초월회장, 김영일부회장, 김영희사무장은 불치의 병으로 목단강시의 한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는 녕안시 우리 공민을 찾아가 육친의 정으로 따뜻한 병문안을 하였다. 병문안을 하면서 지구협회 일군들은 총련합회에서 보내준 위문금을 전달하고 지구협회와 자신들의 마음을 담아 부조를



하면서 위로를 해주었다.

이날 김영희사무장이 해림에서 새벽차로 올라온 김영일부회장에게 따끈한 정심식를 대접해서 집으로 돌려보내다.

김영일부회장은 5월4일 새벽에 이미 별세한

재중조선인총련합회부의장이였던 최청산전고문의 아들인 최림이가 본인이 갑자기심장이 아파서 같이 병원에 가자는 전화부탁을 받고 즉시 택시를 잡아 타고 수십리 떨어져 있는 최청산전고문의 집으로 달려가 불구자인 최림이를 데리고 시 병원에 가서 종합검사를 받으며 온 하루를 병원에서 보내였다. 검사결과는 다행이도 큰 병은 아니였다.

김영일부회장은 최청산 전고문의 집안일을 자기의 일처럼 여기면서 최청산전고문의 처 제사 날에도 최청산전고문의 집을 찾아서 최림이와 함께 제사상을 차려놓고 고인에게 인사를 올리였다.사실 김영일부회장도 심장병으로 건강이 좋지않아 병원 신세를 지고 사는 일군이다. 벌써 몇해전에 저 세상으로 떠나간 최청산전고문의 자식을, 우리 조선공민도 아닌 아들을 돌봐주지 않은들 그 누구도 말할 사람도 없을것이다.

요즘은 자식들이 부모를 모시기 싫어서 양로원에 보내는 세월이다. 홀어머니가 자식넷을 길러도 자식넷은 어머니한분을 모시지못해 양로원에 보내는것이 일쑤이다. 목단강지구협회 일군들은 협회지부활동을 동포제일주의로 지향시키는 정말 흔하지않는 모범일군들이다.

지금 중국에서 살고있는 우리 공민들의 다수가 고령이여서 거동이 불편하지만 개혁개방정책으로 자식들은 생계를 위해 해외로, 타지방으로 떠나가 홀로 외롭게 살면서 정신건강상문제로 인하여 치매, 우울증환자들이 생겨나면서 양로원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치는 우리공민들이 속출하고있다.

늙은이가 길에서 넘어져 있는것을 보아도 일으켜주는 사람이 적은, 인정이 점점 희박해지는 현실과는 달리 공민들을 위하여 뛰여다니는 목단강지구협회의 일군들은 조국에서 바라는 일군들이며 지부와 지구협회, 총련합회일군들이 사업과 생활에서 본받아야 할 일군들이다.

목단강지구협회 일군들이 이렇게 서로 아끼고 도와주며 정으로 뭉쳐 사업과 생활하는 모습에 나는 총련합회일군으로서 머리를 숙이게 된다.

나는 총련합회목단강지구협회 담당자로서 로일군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조국이 바라는 일군으로 본분을 다 하기 위해 노력할것이다.

기시다의 서울행각은…

한성옥 재중조선인청년협회 회장

얼마전 일본수상 기시다가 서울을 행각하였다.

남조선에서 반일기운이 높아지고 괴뢰들과 쪽발이들의 관계가 랭랭해진것으로 하여 고기덩이를 넘겨다보는 구미여우마냥 군침을 흘리며 기회만 엿보던 섬나라 집권자가 서울에 날아들기는 12년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윤석열역적패당은 이번 기시다의 서울행각을 두고 《수뇌왕복외교》의 복원이요, 《대승적결단으로 쌍방관계의 판을 바꾼 커다란 외교적성과》요 하면서 송장 본 갈가마귀떼처럼 요란스럽게 떠들어대고있다.

그야말로 소가 웃다 꾸레미가 터질 노릇이다.

그러면 기시다의 서울행각이라는 커다란 《외교적성과》를 가져온 역도의 《대승적결단》이란것은 과연 어떤것인가.

2018년 10월 일제식민지통치시기 수백만의 조선청장년들을 일본에 강제로 끌고가 노예로동을 강요한 일본의 죄행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남조선 각계층의 완강한 투쟁에 의하여 괴뢰대법원이 일본의 전범기업에 손해배상금을 지불할데 대한 판결을 내리고 일본것들이 그에 대한 보복조치를 취해나서면서 괴뢰들과 일본

사무라이들사이의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였으며 지금껏 어느 한쪽도 물러서지 않고있었다.

그러나 《일본은 이제 과거 군국주의침략자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가치를 공유하고 <북핵위협>을 막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협력동반자》라고 주저없이 뇌까린 윤석열역도는 《일본과의 <관계개선>은 어차피 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미리 매를 맞는것이 낫다.》는 어리석은 망언도 서슴치 않으면서 민심의 대일적개심은 아랑곳하지 않고 천년숙적에게 무릎걸음을 하였다.

지난 3월 기시다를 기신기신 찾아간 역도는 일본전범기업에 강제징용피해자들에 대한 배상판결을 내린것은 1965년에 체결된 남조선일본 《청구권협정》과 모순된다, 《3자변제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어엎고 일본기업들이 물어야 할 강제징용피해자배상금을 1965년 남조선일본 《청구권협정》 체결로 경제적리득을 얻었다는 16개의 남조선기업들이 대신 물게 하는 《3자변제방안》이라는 세상 웃기는 해괴망측한 배상안이라는것을 내놓았다. 그리고는 이를 《대승적인 결단》이며 이에 상응한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이 따를것이라고 떠들어댔다.

뿐만아니라 호시탐탐 재침의 기회만을 엿보고있는 일본의 군국주의야망의 발로인 《반격능력》보유를 리해한다, 《북핵 및 미싸일위협》에 남조선과 미국, 일본사이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일본과 《북미싸일정보》에 대한 실시간공유를 추진해야 한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떠벌이며 군국주의상징인 《욱일기》를 단 일본해상《자위대》의 침략선들을 독도수역에까지 끌어들여 동족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연습에 광분했는가 하면 세상사람들이 경악하는 후꾸시마원자력발전소 핵오염수방류를 묵인하고 일본것들도 께름해하는 후꾸시마산 수산물수입재개를 다짐하였으며 《독도령유권》을 주장하는 상전의 교활무쌍하고 강도적인 망발에 한마디 대꾸도 못하는 멍텅구리짓도 서슴지 않았다.

역도는 미국행각을 앞두고 미일상전의 눈도장을 찍기 위해 《100년전에 일어난 일때문에 일본과의 협력이 절대로 불가능하다거나 일본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는 생각은 나는 절대로 받아들일수 없다.》는 온 겨레는 물론 만인의 격분을 자아내는 망언까지 토해냈다.

이렇듯 윤석열역적패당이 요란스럽게 떠드는 《대승적결단》이라는것은 간도 쓸개도 다 섬겨바치며 상전에게 아부굴종의 무릎걸음을 한 비굴하기 그지없는 주구의 추태인것이다.

윤석열역도의 친일본색은 이번 기시다의 서울행각을 통하여 더욱 여실히 드러났다.

역도는 기시다의 서울행각에 감복하여 《성대한 규모》의 공식환영식 개최요, 《국빈급례우》요 하며 상전을 신주모시듯 추악스러운 분주탕을 피워대며 《쌍방이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협력을 위해 한발자국도 내짚을수 없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과거 쌍방관계가 좋았던 시절을 넘어 더 좋은 시절을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는 등 친일망언으로 더러운 매국노의 추악스런 몰골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또한 회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워싱톤선언》에 일본이 참가하는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워싱톤선언》은 완결이 아니다, 공동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통해 궤도에 올라서면 일본도 참가할수 있다고 줴쳐댐으로써 동족을 해치기 위한 미국과의 핵전쟁모의에 일본도 끌어들일 흉계를 꺼리낌없이 드러내고 해외군사

팽창에 열이 오를대로 오른 일본반동들에게 재침의 대문을 활짝 열어주는 범죄를 저질렀다.

윤석열역도의 친일굴종적태도에 기고만장한 기시다는 8일 《한일의원련맹》소속 괴뢰국회의원들과 《전국경제인련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6개 괴뢰경제단체장들을 면담이랍시고 차례차례 불러들여 종주국의 군주처럼 행세하다가 일본으로 돌아갔다.

이번 기시다의 서울행각은 《답례》행각이 아니라 명명백백히 손안에 든 주구-윤석열역도를 더욱 길들여 군국주의야망실현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룡와대》에 일장기를 꽂은 서울점령행각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역도가 천년숙적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비굴하게 놀아댄것은 역도의 뿌리깊은 친일본성의 직접적발로로써 을사오적을 무색케 할 특등매국노의 가증스러운 반역적추태이며 외세와 야합하여 우리 민족에게 치욕과 재난을 들씌우는 천추에 용납못할 역적행위이다.

하기에 기시다의 서울행각을 전후하여 남조선전역에서는 윤석열역도의 친일굴종적망동을 준렬히 단죄규탄하며 역도를 력사의 심판대우에 올려세우려는 대중적투쟁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있다.

기시다의 행각일정이 공개되였을 때부터 《초불승리전환행동》,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련대》, 《2015 한일합의파기를 위한 대학생공동행동》,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화회복시민련대》를 비롯한 각계층 단체들은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고 《현재 력사정의를 배반하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해치는 방향으로 향하고있는 기시다를 도저히 환영할수 없다.》, 《이번 <정상회담>은 굴욕적인 강제동원해법으로 구걸한것이다. 이런 회담에서 무엇이 제대로 론의되겠는가.》고 하면서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지 않고 굴종으로 일관하는 윤석열역도를 준렬히 단죄규탄하고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도 기자회견과 론평 등을 통해 기시다의 이번 행각을 《수뇌왕복외교》의 복원이라고 광고하지만 《국익》과 《안보》를 팔아넘긴 《속국외교》, 일본의 사죄 한마디 없는 《빈손외교》에 불과하다, 이번 회담은 무능과 굴욕의 종합판이다, 윤석열은 력사를 외면하고 팔아먹은 《대통령》으로 력사에 기록될것이라고 혹평하였다.

오죽 분통이 터져왔으면 인터네트에 《나에게 총 한자루와 실탄 100여발을 달라. 일본총독 윤석열을 력사와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하겠다. 윤매국노를 처단하여 놈이 좋아하는 왜나라 후꾸시마원자력발전소옆에 묻어버리겠다.》는 글까지 오르고있겠는가.

《친일굴욕외교 윤석열을 타도하자!》, 《특등친일매국노 윤석열을 심판하자!》,《다시 초불을 들고 윤석열을 몰아내자!》, 바로 이것이 남조선 각계층속에서 활화산마냥 터져오르는 분노의 웨침이다.

력사는 기록하고있다. 민족앞에 씻을수 없는 죄악만을 쌓은 매국노들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특등매국노, 일본의 앞잡이 윤석열역도의 운명 역시 달리될수 없다.

나라의 주요곡창지대들에서 모내기에 속속 진입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사를 잘 짓자면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농업부문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자기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주요곡창지대들에서 모내기에 진입하는 농장들이 속속 늘어나고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전원회의 결정관철에 떨쳐나선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 농촌지원자들이 적기가 되는족족 모내기에 진입하여 속도와 질을 철저히 보장하면서 작업속도를 높이고있다.

연백벌에서

연백벌의 농촌들에서 모내기를 시작하였다.

붉은기들이 펄펄 휘날리는 포전들에서는 농업근로자들의 심장을 높뛰게 하는 정치선전, 경제선동이 공세적으로 벌어지고있다.

5월중에 기본면적의 모내기를 결속할 목표밑에 지난해보다 앞당겨 모를 내기 시작한 배천군에서는 선행공정을 확고히 앞세우는데 힘을 넣고있다. 모내기현장에 좌지를 정한 일군들은 분위기를 고조시키는것과 함께 농기계의 만가동보장에 모를 박고 제기되는 문제를 즉시 풀어나가고있다. 군에서는 사회주의경쟁을 의의있게 조직하여 뜨락또르운전수들의 열의를 높여주는 동시에 후방사업도 실속있게 하면서 논써레치기가 일정계획보다 앞서나가도록 하고있다. 운전수들은 이른새벽부터 발동소리를 높이 울리며 구석진 곳까지 논수평이 보장되도록 써레치기를 질적으로 하고있다. 농촌기계화초병의 본분을 자각하고 시간마다 작업실적을 높이고 있다.

청단군에서는 지난 8일 모를 내기 시작한 심평농장의 뒤를 이어 청정농장, 화산농장이 모내기에 진입하였다.

써레치기를 해나가는 뜨락또르들의 동음과 유리판처럼 반듯하게 공그른 논판을 푸르게 수놓으며 맴도는 모내는기계들의 발동기소리가 온 벌판에 울려퍼지고있다.

재령벌에서

모내는기계를 100% 가동시키기 위한 작전을 치밀하게 세운 재령벌의 농촌들에 혁명적랑만과 기상이 나래치고있다.

모내기를 시작한 로암농장, 대추농장을 비롯한 안악군의 여러 농장에서 모내는기계의 가동률을 최대로 높이고있다. 농장일군들은 모내는기계운전공들과의 사업에 큰 힘을 넣어 그들이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하도록 하고있다. 모내는기계운전공들은 모를 질적으로 내면서도 작업

능률을 비상히 높이고있다. 항상 설비관리를 깐지게 하여 평당포기수와 포기당대수가 정확히 보장되게 하고있다.

신천군의 백석농장, 새길농장에서도 모내는기계의 만가동을 보장하면서 모내기를 질적으로 하고있다. 모내는기계운전공들은 운전조작을 정확히 하여 벼모의 랑비와 손상을 없애면서도 기대당 하루작업능률을 최대로 보장하고있다. 농업근로자들은 모내기를 한 후 빈포기나 물우에 뜬 모가 없는가를 꼼꼼히 살피면서 포전마다에 깨끗한 량심을 묻어가고있다.

열두삼천리벌에서

눈뿌리가 모자라게 펼쳐진 열두삼천리벌에서도 모내기가 진행되고있다.

일군들은 실정에 맞게 모내기일정계획을 과학적으로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완강하게 내밀고있다.

숙천군에서 치밀한 조직사업으로 물길들의 물통과능력을 높인데 이어 농장들에서 써레치기를 선행시키면서 모내기시작부터 일정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고있다. 신풍농장, 칠리농장 일군들은 농사지도를 현장에 바싹 접근시키고 모내기의 모든 공정들이 치차처럼 맞물려 돌아가도록 하고있다. 농업근로자들은 그날 계획된 모내기를 끝내기 전에는 포전을 떠나지 않고있다.

지난 12일 모내기를 시작한 문덕군 만흥농장에서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하고있다. 계획을 면밀하게 세운데 기초하여 뜨락또르별로 과제를 정확히 주고 포전별특성에 맞게 논써레치기를 진행하도록 하고있다. 모내기속도가 높아지고있다.

룡천벌에서

룡천벌에서도 모내기가 시작되였다.

룡천군에서는 산두농장, 룡송농장을 비롯하여 모내기에 진입한 농장들이 늘어나는데 맞게 지원력량을 합리적으로 편성하여 농촌에 집중하고있다. 농장일군들은 튼튼한 모를 보장하는 사업을 강하게 틀어쥐고 내밀고있다. 현장에 나가 모판들을 일일이 돌아보면서 자그마한 부족점도 나타나지 않도록 기술지도를 실속있게 하고있다.

모판관리공들은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다운 립장에서 모판관리정형을 매일매일 정상적으로 총화하고 부족점을 바로잡아나가고있다. 벼모가 상하지 않게 모판온도를 기술지표대로 정확히 보장하고있으며 밤에 찬바람이 조금이라도 스며들세라 나래를 잘 덮어주고있다. 현지에서 모판관리와 관련한 농업과학기술을 학습하고 서로서로 배워주면서 모기르기를 책임적으로 하고있다.

일군들은 우수한 모판관리경험과 주인다운 일본새를 널리 소개하면서 모든 모판관리공들이 애국적열의를 가지고 모기르기에 정성을 기울여 실한 모를 중단없이 모내기현장에 보내주게 하고있다.

지금 룡천벌의 농업근로자들은 한해 농사의 성과를 좌우하는 모내기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계속 분발하고있다.



당이 제시한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할 드높은 열의를 안고 모내기를 다그치고있는 강서구역 청산농장

《봄철녀성옷전시회-2023》 개막



화창한 봄계절을 맞는 수도 평양에서 24일 《봄철녀성옷전시회-2023》이 열리였다.

풍치수려한 보통강반의 봄정서를 더해주며 불장식으로 특색있게 단장된 야외전시회장에는 우아하고 산뜻한 각양각색의 봄, 여름철녀성옷들이 전시되였다.

개막식에서 발언한 경공업상 김창석동지는 이번 전시회가 우리 식의 고상한 옷차림문화를 발전시키고 피복전문가들과 애호가들사이에 우수한 기술을 호상 교류하는 또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될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재질과 형태, 색, 무늬, 장식효과를 잘 조화시킨 계절옷들은 년령별, 직업별특성과 체형에 맞게 우리 녀성들의 인품과 용모를 돋굴수 있도록 세련되고 단정하며 활동에 편리하게 만든것으로 하여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녀성옷의 발전추세와 현대적미감을 잘 살리고 꽃계절특유의 자연풍경과도 어울리는 밝은 색과 여러가지 형태의 달린옷들이 인기를 끌고있다.

전시회기간 피복생산단위들사이의 기술교류, 옷도안창작 및 가공과 관련한 경험발표회, 세계적인 피복공업의 실태와 발전전망에 대한 강습이 있게 되며 제품들에 대한 전문가심사, 군중심사와 함께 주문봉사 등도 진행된다.



각지 수산사업소들에서 물고기잡이성과 확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결정을 받들고 각지 수산사업소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이 물고기잡이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다.

서해지구 수산사업소의 어로공들이 물고기잡이에서 실적을 올리고있다.

문덕수산사업소에서는 두통식안강망선들의 가동률을 높이면서 수천t의 건뎅이를 퍼올렸으며 5월에 들어와 수백t의 까나리를 잡았다.

운전수산사업소의 어로공들은 합리적인 어로방법들을 받아들여 어획고를 부쩍 높이고있다.

어군탐색을 과학적으로 벌리고있는 한천수산사업소, 정주수산사업소 등에서도 척당, 기망당 생산량을 늘이고있다.

동해지구 수산사업소의 어로공들도 물고기잡이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김책수산사업소에서는 해양조건과 물고기떼의 움직임을 제때에 포착하고 어로수단과 장비들을 집중하여 5월송어잡이계획을 앞당겨 완수하였다.

청진수산사업소, 송도원수산사업소, 통천수산사업소에서도 배들의 호상간련계를 강화하고 집중과 분산을 배합한 기동적인 어로전으로 많은 물고기를 잡고있다.

해주농기계공장에서 새형의 모내는 기계를 농촌들에 보내주었다

황해남도에 있는 해주농기계공장에서 새형의 모내는기계를 생산하여 농촌들에 보내주었다. 새형의 모내는기계는 종전의 모내는기계에 비해 다루기가 수월하여 운전공들의 부담을 덜어준다. 논의 토양조건에 구애됨이 없이 모내는 작업을 원만히 할수 있어 리용률도 높다.

지금 공장에서 생산한 새형의 모내는기계들은 도안의 여러 농장별에서 드높은 동음을 울리며 모내기적기와 질보장에서 한몫 단단히 하고있다.

각지에서 젖가루생산토대를 강화하는데 계속 주력

당의 육아정책을 받들고 각 도들에서 모든 농촌리들에까지 젖가루생산설비를 원만히 갖추기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있다.

평안북도, 함경북도에서는 지난해 경험을 적극 살려 올해 설비제작계획을 보다 높이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내밀고있다.

젖가루생산설비들을 계렬생산할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 황해북도, 강원도에서는 농촌실정에 부합되면서도 기술적으로 담보된 젖가루생산설비를 제작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함경남도 금야군, 북청군, 자강도 희천시에서는 자체의 기술력량을 강화하는데 힘을 넣고 필요한 자재보장을 따라세워 설비제작의 신속성과 효률성을 보장하고있다.

평안남도 숙천군을 비롯한 군들에서도 젖가루생산설비제작과 운영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생산건물건설을 동시에 내밀고있다.

각지 농촌들에서 과학기술보급사업 활발

각지 농촌들에서 과학농사시대에 맞게 모든 농장원들을 지식형의 근로자, 과학농사의 주인으로 준비시키기 위한 학습열풍이 일어번지고 있다.

평양시 강남군 당곡농장에서는 농업과학기술선전실들에 공정별에 따르는 선진영농방법들을 반영한 직관물들을 게시하고 실천에 실지 도입하기 위해 포전에서의 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하고있다.

농업과학기술보급실을 새로 꾸리고 그 운영을 정상화하고있는 형제산구역 형산남새농장에서는 농장원들 누구나 보급실을 일터의 교정으로 삼고 열심히 배워 기술지식수준을 높이도록 하고있다.

량강도 삼지연시 중흥농장, 함경북도 회령시 인계농장에서는 과학농사본보기작업반을 정하고 성과와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고있다.

평안북도 운전군 운하농장에서는 농업과학기술보급사업을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조직하여 농장원들이 과학농사에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떨쳐나서도록 하고있다.

자강도 위원군 고보농장, 평안남도 대동군 와우농장에서도 과학기술보급에 필요한 기재들을 마련해놓고 기술학습에 대한 장악과 지도, 총화를 실속있게 해나가고있다.

대학들에서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구조개선사업에 박차

각지 대학들에서 과학기술발전과 경제발전에서 핵심적역할을 할수 있는 특출한 인재들을 더 많이 양성할수 있게 교육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여러 대학에서 일류급학과건설을 계속 다그치면서 새 교수관리제도를 도입하여 경험을 쌓고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정치사상과목들의 교수내용을 갱신하고 과학기술부문 대학들에서 수천개에 달하는 학과목들의 내용을 높은 수준에서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하며 10개의 첨단 및 경계과학부문 과목을 개척하는 사업이 적극 벌어지고있다.

올해에 들어와 많은 대학들에서 연구형교수방법, 연구형학습방법을 창조도입하기 위한 사업이 벌어지고 학위학직소유자대렬을 늘이는것과 함께 학술일원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교원들의 자질을 높이고 전반적인 교육수준을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는 사업이 더욱 심화되고있다.

생물다양성보호와 지속적리용을 위한 국가적인 노력



22일은 국제생물다양성의 날이다.

국제적인 생물다양성협약에 서명한 우리 나라는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국가적인 여러 분야의 사업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그 과정에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였으며 생물다양성보호를 위한 중장기적인 사업들을 계획하고 밀고나가고있다.

나라의 실정에 맞게 록색중장기계획이 반영된 전국국토건설총계획을 작성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자연자원을 지속적으로 리용해나가도록 하고있다.

산림생물다양성을 보호하며 전국의 거리와 마을들에 원림경관을 조성하고 공원과 유원지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꾸려 도시생태계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고있다.

물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한 국가적인 치수전략작성과 그 집행을 위한 사업도 추진됨으로써 내수면생태계들과 습지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인 대책이 전개되고있다. 나라의 수산자원을 보호증식하는 사업을 계획적으로 실속있게 진행하여 연안과 령해의 생물다양성보호에서 좋은 결실이 이룩되고있다.

전국적인 보호구들을 조사평가하고 그 면적을 단계별로 늘여 우리 나라의 독특하고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적극 보호해나가도록 하고있다.

련관부문 과학연구기관들에서 최근년간 90개이상의 보호구들과 생물다양성중점지역들에서 진행한 현지조사를 통하여 곰, 복작노루, 기러기-오리류들과 도요류를 비롯한 동물종들의 마리수가 그전에 비해 급격히 늘어났으며 지난시기 기록이 없던 생물종들이 많이 관찰되였다.

이외에도 섬참새와 꽃진경이, 긴다리도요가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번식활동을 진행하고 있는것이 기록된것 등을 통해 나라의 생물다양성이 날로 풍부해지고있다는것을 립증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해마다 국제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으며 생물다양성보호에 대한 사회적인식을 높여주기 위한 여러가지 선전활동들을 광범히 진행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련방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모스크바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각하

나는 로씨야인민이 위대한 조국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한 뜻깊은 날에 즈음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 인민의 이름으로 당신과 친선적인 로씨야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로씨야인민은 무비의 영웅주의와 희생성을 발휘하여 인류의 운명을 위협하던 파시즘을 격멸하는 정의의 대전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

승리는 로씨야의 고유한 전통이며 전승의 영광은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여도 력사에 길이 빛나며 로씨야와 더불어 영원할것입니다.

나는 강인하고 정의로운 로씨야인민이 당신의 령도밑에 적대세력들로부터 가해지는 온갖 도전과 위협을 짓부시고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 지역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려정에서 앞으로도 계속 승리하리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에 맞서 국제적정의를 실현하고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선 당신과 로씨야군대와 인민에게 다시한번 뜨거운 전투적인사를 보내는바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주체112(2023)년 5월 9일 평양

김덕훈동지 꾸바공화국 내각 수상에게 축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 김덕훈동지는 꾸바공화국 내각 수상으로 다시 임명된 마누엘 마레로 끄루스에게 4월 26일 축전을 보내였다.

축전은 반제자주,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속에서 맺어지고 강화되여온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공고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하였다.(끝)

로씨야의 전승절에 즈음하여 조로사이에 친선모임이 진행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로씨야의 위대한 조국전쟁승리 78돐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 주재 로씨야련방대사관 성원들을 위한 친선모임을 마련하였다.

여기에는 최선희 외무상과 임천일부상을 비롯한 외무성 일군들,알렉싼드르 마쩨고라 우리 나라 주재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친선모임은 동지적이며 따뜻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끝)

자위적핵강국의 기상은 더 높이 떨쳐질것이라고 여러 나라 인사들 강조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자주적신념과 담대한 배짱,위대한 애국헌신으로 주체조선의 영원무궁한 안녕과 미래를 굳건히 담보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심을 담은 축전과 축하편지들을 계속 보내오고있다.

남아프리카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협회 위원장은 자주의 기치높이 힘차게 나아가는 조선의 자랑찬 현실에서 인류는 강위력한 국방력이야말로 정의와 진리,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근본담보이라는 력사의 철리를 다시금 절감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벨라루씨주체사상연구협회 위원장은 조선은 미국의 침략적기도를 강력히 억제할수 있는 최강의 핵무력을 보유한 자주의 성새이라고 격찬하였다.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따라 조선은 불패의 핵강국,그 어떤 적도 단매에 쳐부실수 있는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위용떨치고있다고 하면서 기네주체문학사상연구회 회장,브라질선군정치연구쎈터 위원장은 정의의 핵이 있어 제국주의와의 대결에서 조선의 승리는 확정적이라고 강조하였다.

룩셈부르그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스웨리예주체사상연구소조 책임자,핀란드조선협회 서기장은 국가핵무력건설대업의 완성으로 우리 국가의 영광과 존엄을 세기의 절정에 올려세우시고 강성번영의 최전성기를 펼쳐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열렬히 칭송하였다.

민주꽁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위원장은 조선인민이 존엄높은 강대한 나라에서 영원히 전쟁의 참화를 모르고 자자손손 복락을 누릴수 있게 해주신것은 **김정은**각하의 최상최대의 업적이다, **김정은**각하께서 계시여 자위적핵강국의 불굴의 기상은 더 높이 떨쳐질것이다고 강조하였다.(끝)

조선평화통일지지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 확대회의 진행

조선평화통일지지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 확대회의가 4월 25일 인도네시아의 쟈까르따에서 화상방식으로 진행되였다.

조선평화통일지지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와 여러 나라의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단체 성원들, 백두산위인칭송국제축전 조직위원회 인사들, 국제인민투쟁련맹 위원장 등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을 뜻깊게 경축할데 대한 문제가 토의되였다.

지역위원회 서기국장 레이몬드 퍼그손은 회의에서 한 발언에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을 계기로 **김일성**주석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며 조선반도에서 새 전쟁을 도발하려고 미쳐날뛰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책동을 단죄규탄하는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운동도 강화해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회의에서는 세계평화애호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채택되였다.

호소문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지금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은 세인이 공인하는 막강한 군력을 갖춘 공화국에 의하여 믿음직하게 지켜지고있다.

우리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이 일심단결의 위력과 자위적국방력으로 미국의 패권전략에 맞서나가며 인류의 리상사회건설을 위해 매진하는 조선인민의 위업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보내리라고 확신한다. (끝)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조선중앙통신사를 통해 립장 발표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4월 28일 조선중앙통신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립장을 발표하였다.

남조선대통령 윤석열의 이번 워싱톤방문은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근원과 그 실체에 대한 더더욱 명백한 리해를 가질수 있게 하는 계기로 되였다.

26일 미국과 남조선집권자들은 수뇌회담후 《확장억제력》의 실행력제고방안을 담은 이른바 《워싱톤선언》이라는것을 발표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자기들의 선택과 행동의지를 명문화하였다.

미국과 남조선집권자들이 조작해낸 《워싱톤선언》은 가장 적대적이고 침략적인 행동의지가 반영된 극악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집약화된 산물로서 동북아시아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더 엄중한 위험에 로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것이며 정녕코 환영받을수 없는 행위로 된다.

《핵협의그루빠》 조작과 미핵전략자산들의 정기적이며 지속적인 전개와 빈번한 군사훈련으로 하여 지역의 군사정치정세는 부득이 불안정한 흐름에서 벗어날수 없게 되였으며 결과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안전환경에 상응한 보다 결정적인 행동에 림해야 할 환경을 제공하였다.

반드시 계산하지 않을수 없고 좌시할수 없는 또 하나의 사실은 적국 통수권자가 전세계가 지켜보는 속에서 《정권종말》이라는 표현을 공공연히 직접 사용한것이다.

이를 늙은이의 망녕이라고 보겠는가?

미국의 안전과 앞날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적일수가 없고 자기앞의 남은 임기 2년만 감당해내자고 해도 부담스러울 미래가 없는 늙은이의 망언이라고도 할수는 있겠다.

하지만 가장 적대적인 미국이라는 적국의 대통령이 직접 쓴 표현이라는 사실, 이는 우리가 쉽게 넘겨줄수 없는 너무나도 엄청난 후폭풍을 각오해야 하는 수사학적위협이다.

힘에 대한 과신에 빠져 너무도 타산없고 무책임하게 용감했다.

달리는 해석될수 없고 그 이상 더 명백할수 없는 우리 국가에 대한 워싱톤과 서울의 위정자들과 군부호전광들의 적대적흉심을 재확인할수 있은 이번 기회는 우리에게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에 철저히 준비되여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명백한 답을 주었다.

번져지고있는 정세는 매우 엄중하다.

윤석열은 이번에도 《한국형3축체계》를 포함해 압도적대응능력과 응징태세를 구축할것이라고 지껄이면서 《한》미련합연습과 훈련을 더욱 강화할것임을 명백히 하였다.

미국으로부터 빈껍데기《선언》을 《배려》받고도 《미국의 확고한 확장억제공약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감지덕지해하는 그 못난 인

간의 사유세계를 어찌 쉽게 들여다볼수 있겠냐마는 우리는 윤석열이 자기의 무능으로 안보를 도마우에 올려놓고도 무슨 배짱을 부리며 어디까지 가는가를 두고볼것이다.

미국과 남조선의 망상은 앞으로 더욱 강력한 힘의 실체에 직면하게 될것이다.

우리는 핵전쟁억제력제고와 특히는 억제력의 제2의 임무에 더욱 완벽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신하였다.

우리는 명백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고있다.

적들이 핵전쟁연습에 광분할수록, 조선반도지역에 더 많은 핵전략자산들을 전개할수록 우리의 자위권행사도 그에 정비례하여 증대될것이다.

재일조선인민족교육말살을 노린 일본반동들의 만고죄악의 력사는 절대로 부정할수 없다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 비망록

우리 인민의 천년숙적인 일본의 죄악에 찬 력사속에는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총련)와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말살하기 위하여 감행한 피비린내나는 범죄의 행적도 무수히 찍혀져있다.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는 민족교육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재일동포들의 4.24교육투쟁 75돐을 맞으며 동서고금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일본반동들의 극악무도한 민족교육말살범죄를 만천하에 폭로하기 위하여 이 비망록을 발표한다.

전대미문의 국가적인 테로행위

일본당국은 패망후부터 오늘까지 재일조선인민족교육말살을 국책으로 삼고 집요하고 악랄하게 추진하여왔다.

일제의 식민지우민화,《황국신민화》정책으로 현해탄건너 일본땅에서 온갖 민족적멸시와 차별속에 살아온 재일동포들은 해방후 자녀들에게 우리 말과 글을 배워주어 그들을 민족의 넋을 지닌 조선사람으로 키워내기 위하여 피땀에 절은 푼전을 모아 일본도처에 국어강습소들을 일떠세웠다. 그후 국어강습소는 점차 학교로 발전하여 1948년초 조선학교수는 무려 500여개, 학생수는 6만여명,교원수는 1 300여명에 이르게 되였다.

날로 확대되는 재일조선학교의 존재는 조선전쟁준비에 미쳐날뛰던 미일반동들에게 있어서 골치거리가 아닐수 없었다.

1948년 1월 6일 미륙군장관 로이얄은 《일본을 공산주의를 막기 위한 방벽으로 만들겠다. 그러자면 반미세력을 철저히 제거해버려야 한다.》라고 줴치면서 그 예봉을 재일조선인운동에 대한 전면탄압에 돌리도록 하였다. 이자의 객적은 망발은 패망의 분풀이를 하지 못해 몸살을 앓고있던 군국주의광신자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

미국상전으로부터 가장 구미동하는 먹이감을 받아문 일본반동당국은 1948년 1월 24일 문부성 학교교육국장의 명의로 《조선인설립학교의 취급에 대하여》라는 지령을 각 도,도,부,현지사들에게 하달하였다.

조선인의 독자적인 학교설치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며 재일조선인자녀들은 반드시 일본학교에 입학하여야 한다는 강도적인 요구가 담긴 《1.24지령》은 일제가 식민지통치시기 우리 인민에게 동화교육을 강요하였던 악명높은 《조선교육령》의 갱신판이였다.

재일동포들이 황당무계한 《지령》을 당장 철회하며 재일조선인들의 교육을 조선사람들의 독자성에 맡길것을 요구하여 결연히 투쟁에 떨

쳐나서자 일본반동들은 그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였다.

민족교육을 요람기에 말살하려는 일본반동들의 야만적인 폭거는 재일동포들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였으며 재일조선인운동사에 4.24교육투쟁으로 기록된 대중적항거를 낳았다.

이에 질겁한 고베주둔 미점령군은 4월 24일 23시 30분 미8군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비상사태선언》을 공포하고 대대적인 검거선풍을 일으켰다.

미일반동들은 효고와 오사까,오까야마 등지에서 재일본조선인련맹(조련) 효고현본부 위원장을 비롯한 3 076명의 애국적활동가들과 교원들, 동포들을 체포투옥하였으며 4월 25일에는 고베시에서 1 572명의 동포들을 체포련행하였다. 미일반동들은 4월 26일 5 000여명에 달하는 방대한 경찰무력을 내몰아 오사까항의집회에 참가한 재일동포들에게 물총을 쏘아대고 총탄까지 란사하였다.

이 류혈적이며 야만적인 탄압으로 수많은 동포들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16살난 김태일소년은 흉탄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바로 이것이 패망후 일본당국이 감행한 재일조선인민족교육에 대한 첫 국가적인 테로행위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과 함께 재일동포들의 민심이 더더욱 평양으로 쏠리게 되자 미일반동들은 1949년 9월 8일 《폭력단체》, 《점령정책위반》이라는 당치 않은 구실을 붙여 조련을 강제해산시켰으며 10월에는 또다시 조선학교해산결정을 내리였다.

이에 따라 10월 19일부터 일본전역에서 조선학교들에 대한 강제해산이 강행되였으며 340여개에 달하는 재일조선학교가 페쇄몰수되거나 비법화되였다.

재일조선인민족교육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테로행위는 조선전쟁시기에 더욱 살벌하게 감행되였다.

우리 공화국의 존엄높은 해외공민단체인 총련결성이후 일본반동들은 불법무법의 《외국인학교법안》이라는것을 조작하여 총련민족교육을 공개,합법적으로 말살해보려고 획책하였다.

《외국인학교법안》은 일본정부의 문부상이 재일조선학교의 관리운영권을 틀어쥐고 교육내용의 변경으로부터 교원임명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권한을 장악함으로써 총련의 민족교육을 전면적으로 탄압말살하고 동포자녀들에게 동화교육을 강요하려는 파쑈악법이였다.

1948년 12월 10일에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제26조 2항에는 《교육은 인간의 개성을 충분히 발전시키며 인권과 기본자유를 더욱 존중하도록 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교육은 모든 인민들과 인종들 그리고 종교집단사이의 호상리해와 량해,친선을 도모하며 평화유지를 위한 유엔활동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제되여있다.

그러나 1965년 12월 일본수상 사또는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식민지에서 해방되여 독립하였다면 독립된 교육을 하여야 하되 그것은 그 나라에서 하여야 하며 여기는 일본이기때문에 일본에서 그것을 요구하여도 그렇게 할수 없다.》는 망발을 늘어놓았다. 군국주의괴수의 이 후안무치한 궤변에는 일제의 조선강점과 야만통치가 빚어낸 죄악의 력사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재일조선인문제를 일반 외국인문제속에 용해시키려는 일본당국의 비렬한 정치적속심이 그대로 깔려있었다.

일본반동들이 총련민족교육을 겨냥한 최대악법을 립법화하기 위하여 얼마나 발광하였는가 하는것은 1966년부터 1972년까지 무려 7차례에 걸쳐 《외국인학교법안》성립을 기도하고 국회에 5번이나 상정시킨 사실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하지만 우리 공화국의 강경한 립장과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격렬한 항의투쟁,내외여론의 규탄에 부딪쳐 《외국인학교법안》은 상정될 때마다 페안되였으며 일본반동정부의 조선학교페쇄기도는 여지없이 파탄되였다.

반공화국, 반조선인감정이 골수까지 꽉 들어찬 일본반동당국은 지난 수십년간 조선학교들에 대한 각종 규제와 탄압을 일삼으면서 재일조선인민족교육말살책동에 집요하게 매여달렸다.

력사적사실은 일본당국의 민족교육탄압책동은 조선민족을 동화시켜 저들의 영원한 노예로 만들려는 정치적야망으로부터 출발한 국가적인 범죄행위였다는것을 명명백백히 립증해주고있다.

살인, 방화, 집단폭행의 주범

일본당국은 재일동포들의 민족교육을 말살하기 위하여 민족배타주의가 뼈속까지 배여있는 극우익깡패들을 내세워 조선학교들과 재일동포자녀들을 대상으로 살인,방화,집단폭행을 거리낌없이 감행하였다.

일본반동들이 손때묻혀 길러낸 우익깡패들은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조선학교 학생들을 살해하는 귀축같은 만행을 감행하였다.

1962년 7월 규슈조선중고급학교 차철이학생은 조선학교 교복을 입고 조선말을 한다는 리유로 일본불량배의 칼에 찔려 14살 꽃나이에 숨을 거두었다. 같은 해 11월 3일에는 가나가와조선중고급학교 신영철(15살)학생이 일본 호세이대학부속 제2고등학교에서 진행되는 문화전시회를 참관하던 도중 이 학교 불량배들의 폭행으로 두개골이 깨여져 절명하였다.

1963년 5월 2일 저녁 도꾜도 시부야역 도요꼬백화점 지하거리에서 일본 고꾸시깡대학부속고등학교 불량학생 25명은 도꾜조선중고급학교 학생 5명에게 생트집을 걸어 집단폭행을 가하다 못해 변광식학생의 오른쪽다리를 칼로 찔러 중상을 입혔다. 5월 17일 일본 닥쇼꾸제1고등학교 불량배 3명과 그를 배후조종한 극우익분자에 의하여 도꾜조선중고급학교 학생이 백주에 칼에 찔리우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였다.

일본당국은 이런 극히 위험한 살인사건,살인미수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살인범,협의자들을 적극 비호하였으며 《증거부족》이라느니,《도망칠 위험이 없다.》느니 하는 미명하에 체포한 범인들을 감싸주거나 놓아주면서 파렴치하게 놀아대였다.

일본반동들은 극우익깡패들을 내몰아 조선학교들에 대한 방화도 공공연히 감행하였다.

1962년 3월 이바라기조선중고급학교가 화재로 불타버리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중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일본경찰당국은 증거가 불명확하다는 리유로 화재의 원인을 끝까지 밝히지 않은채 사건을 덮어버리였다.

1968년 1월 2일 밤 나까오사까조선초중급학교에 도적고양이마냥 기여든 악당들은 학교건물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2층교사를 몽땅 불태워버리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

재일동포들의 피땀이 스민 조선학교들이 소각되는 엄중한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발생하였지만 일본경찰당국은 화재사건수사를 고의적으로 태공하였다.

총련민족교육에 대한 일본당국의 로골적인 적대감은 재일조선학생들에 대한 집단폭행과 랍치,협박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하였다.

1965년 2월 6일 고베시의 3명의 경찰들은 지나가는 고베조선중고급학교 고영일,강하훈학생을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다니지 않는다는 당치 않은 구실밑에 경찰서로 끌고가 옷을 벗기고 때리고 차며 담배불로 지지는 등 갖은 악행을 가하였으며 이러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하여 학생들이 강력히 항의하자 《너희들 조선놈은 일본에서 큰소리를 치지 못한다.》고 모욕하였다.

꼭뒤에 부은 물이 발뒤꿈치로 흐른다고 경찰들의 무지한 폭거는 일본의 불량배들에게 그대로 전파되여 재일동포학생들의 생명을 노린 위험한 집단폭행사건으로 이어졌다.

1964년 3월 19일 도꾜조선중고급학교 고급부 1학년 학생 김준덕에게 달려든 일본깡패들은 몽둥이,기와장,콩크리트쪼각 등으로 그를 사정없이 내리쳐 피투성이로 만들어놓고 도망쳐버리였다. 김준덕학생이 간신히 일어나 근처에 있는 주재소에 신고하였으나 경찰들은 《범인을 찾는다.》고 하면서 부상을 당해 운신도 제대로 못하는 그를 1시간이상이나 끌고다니는 비인간적인 만행을 감행하였다.

1966년 2월 23일 일본불량배 30여명은 《상대가 조고생이면 누구라도 좋다. 해치우라.》고 뇌까리면서 도꾜조선중고급학교 고급부 학생 4명에게 집단적으로 달려들어 몽둥이와 맥주병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일본우익깡패들이 조선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감행한 폭력행위는 1962년부터 1972년까지의 사이에만도 무려 100여건이나 된다.

일본반동들은 조선치마저고리를 입은 연약한 재일조선녀학생들을 주되는 폭행대상으로 삼고 치졸한 악행을 일삼았다.

1983년 11월 24일 일본 가와사끼시에서는

가나가와조선중고급학교 고급부 3학년 녀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날 한 일본깡패는 치마저고리를 입고 학교에서 돌아오던 녀학생에게 《조선인은 일본에서 나가라.》 등의 폭언을 퍼부으면서 나무방망이로 그의 머리를 내리쳐 실신시키였다. 이로부터 불과 10여일만인 12월 6일에는 요꼬하마에서 조선학교 녀학생이 숨어있던 깡패로부터 칼부림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사건이 발생한 즉시 현지경찰당국을 찾아가 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하지만 경찰당국은 고의적으로 사건수사를 질질 끌면서 깡패들의 범죄행위를 눈감아주었을뿐 아니라 《일부 망나니들의 갈갬질》로 밀막아버리였다.

치마저고리를 입은 조선학교 녀학생들을 겨냥한 폭행사건은 1980년대초부터 1990년대말까지 해마다 수십,수백건에 달하였으며 21세기에 들어와서도 광기어린 《치마저고리사냥》은 끊임없이 감행되였다.

가장 대표적인것이 조일평양선언 채택후인 2003년 1월 29일 도꾜 한복판에서 감행된 조선치마저고리칼부림사건이다.

이 치떨리는 인권말살행위에 경악하여 국제학생동맹과 세계직업련맹 서기국을 비롯한 국제기구들과 단체들은 일본당국에 항의전문을 보내여 조선학교들과 학생들에 대한 야만적인 탄압을 중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일본의 량심적인 인사들과 교육관계자들까지도 《사회적약자에 대해 폭력이 가해지는 현 사태는 지난날의 간또대지진이나 전후의 흉악한 차별사건을 방불케 한다.》고 하면서 일본사회의 뿌리깊은 민족차별감정을 개탄하였다.

2001년 3월 유엔인종차별청산위원회는 재일조선인들 특히 어린이들과 학생들에 대한 폭행과 이에 대한 일본당국의 불충분한 대응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일본정부가 그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것을 권고하였다.

국제사회와 일본인민들의 항의규탄에도 불구하고 재일조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일본반동들의 갖은 협박과 폭언,폭행은 끊기지 않았다.

2022년 10월에만도 일본반동들은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인 군사적대응조치들을 구실로 일본사회에 반공화국,반총련여론을 대대적으로 류포시키면서 살벌한 조선인배타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일본반동들의 조직적이며 계획적인 책동으로 말미암아 2022년 10월 4일 집으로 돌아가던 도꾜조선중고급학교 중급부 2학년 남학생이 우익깡패로부터 폭행,폭언을 당한것을 비롯하여 2개월사이에만도 조선학교들과 학생들에 대한 협박과 폭언,폭행사건이 12건이나 련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우에서 언급된 조선학교들과 재일조선학생들을 대상으로 감행된 살인, 방화,집단폭행자료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인륜이 말라버린 일본땅에서는 지금 이 시각도 조선학교들과 재일조선학생들에 대한 공격과 비난이 형형색색의 방법으로 끊임없이 감행되고있다.

조선학교들과 학생들에 대한 살인,방화,집단폭행사건들은 재일조선인민족교육을 반대하는 일본반동들의 극심한 민족배타주의와 차별정책의 로골적인 표현으로서 일본반동당국의 조종하에 력사적으로,체계적으로 감행되여온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들이다.

수치도 모르는 《법치국가》의 진면모

민족교육의 합법적지위를 고수하기 위한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줄기찬 투쟁에 의하여 1970년대 전반기까지 조선학교들이 일본 학교교육법에 따르는 《각종 학교》로 인정되였으나 일본당국은 교육문제와 관련한 새로운 제도적장치들을 내올 때마다 조선학교들을 고의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저들의 졸렬한 모습을 세계앞에 그대로 드러내보였다.

일본당국이 지방자치체 관리들을 내세워 교육기본법에 따라 조선학교들에 할당하게 되여있는 교육보조금을 각종 리유와 구실을 붙여 삭감하거나 완전정지한것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2010년 3월 12일 오사까조선고급학교에 나타난 당시 오사까부지사 하시모또는 조선학교의 교육내용,총련과의 관계를 걸고들면서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는 《요구조건》과 교육보조

금을 맞바꾸려고 어리석게 놀아댔다.

학교측이 이를 강력히 거부하자 하시모또는 2011년 4월에 25년이상이나 지급되여온 교육보조금을 일방적으로 정지해버리였다.

그후 도꾜도지사 이시하라,가나가와현지사 구로이와,지바현지사 모리따,사이다마현지사 우에다를 비롯한 극우익적인 지방자치체 우두머리들이 련달아 조선학교의 교과서내용과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인 국방력강화조치를 구실로 교육보조금을 정지,삭감하였다.

2016년 3월 일본문부과학성은 아베의 지시에 따라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지급과 관련한 류의점에 대하여》라는 통지를 도,도,부,현지사들에게 보내여 조선학교들에 대한 교육보조금의 삭감과 정지를 공개적으로 강요하였다.

일본당국은 총칼이 못한것을 돈이 해결한다는 저들의 《지론》을 《고등학교무상화》,《유아교육,보육무상화》제도실행을 통하여 립증해보려고 집요하게 책동하였다.

2009년 9월 일본자민당패거리들은 《국민의 리해》와 《교육내용검토》를 전면에 내걸고 《조선학교는 순수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공화국의 체제를 뒤받침하기 위한 이데올로기학교 및 대일공작기관일 의혹이 있다.》고 헐뜯으면서 조선학교를 《고등학교무상화》제도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것을 결사반대하였다. 이에 편승하여 오사까부지사 하시모또를 비롯한 지방자치체들에 틀고앉은 극우보수분자들도 만일 정부가 조선학교를 지원대상으로 결정하는 경우라도 《별도로 판단하겠다.》,《공금을 지출하지 않겠다.》고 고아댔다.

2012년에 일본문부과학상 시모무라는 아베의 지시에 따라 2013년 고등학교지원대상과 관련한 법률시행규칙에서 조선고급학교에 고등학교지원제도를 적용하는 근거로 되는 조항을 아예 삭제하도록 내리먹이였다.

이와 함께 지방재판소들을 사촉하여 《고등학교무상화》제도적용을 요구하는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정당한 요구와 주장을 아무런 법적론거도 없이 기각해버리는 불법무법의 횡포를 감행하였다.

유엔인종차별청산위원회(당시),유엔아동권리위원회 등 국제기구들이 5차례에 걸쳐 조선고급학교들을 《고등학교무상화》제도에 포함시키며 일본자치체들의 보조금지급을 재개 및 유지할것을 권고하였지만 그때마다 일본당국은 그 무슨 《랍치문제》 등을 걸고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았다.

일본당국은 《각종 학교》라는 리유로 조선유치반들을 《유아교육,보육무상화》제도에서도 배제하였다.

이것은 명백히 일본반동들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산물로서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유린말살하기 위한 너절하고 유치한 책동이다.

조선학교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일본당국의 차별행위는 세계적인 보건위기상황속에서 더욱 지속하고 유치하게 감행되였다.

일본 사이다마시당국은 2020년 3월 시안의 보육원, 유치원 등에 마스크를 공급하면서 조선학교에 배포한 마스크가 《전매될수도 있다.》고 떠벌이며 사이다마조선초중급학교 유치반만을 제외시키는 차별행위도 서슴없이 자행하였다. 일본당국은 2020년 5월 《COVID-19》확대와 관련하여 《학생지원긴급지급금》조치를 실시할 때에도 유독 총련 조선대학교만을 제외시켰다.

현재 재일동포들은 일본국민들과 꼭같은 세금납부의무를 걸머지고 성실히 리행하고있으므로 일본당국이 재일동포들의 민족교육에 해당한 몫의 교육비를 지불하는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러나 일본당국은 재일조선인민족교육에는 동전 한푼도 내지 않겠다는 고약한 심보로부터 총련민족교육에 대한 《국고부담》을 한사코 외면하고있다.

외국인들에게 자국민들과 꼭같이 동등한 교육권리를 보장하는것은 국제인권협약의 주요내용이다. 유엔아동권리선언에도 《어린이는 누구나 할것없이 기초교육단계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것은 모든 나라, 모든 국가의 의무로 된다.》라고 명기되여있다.

일본당국도 2019년 5월에 개정된 유아교육,보육지원법에서 《모든 어린이들에게 최선의 리익,재정적지원이 보장되여야 한다.》고 요란하게 광고하였다. 하지만 일본당국은 국제법을 란폭하게 위반하고 신성시되여야 할 아동권리

에 관한 협약을 민족배타주의로 얼룩진 저들의 법률에 맞추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것도 모자라 《아이키우기지원법》을 모든 아동들에게 공평하게 적용하겠다고 하던 공약마저 헌신짝처럼 줴버리고 순진한 재일조선어린이들의 동심에 무참히 칼질을 하였다.

이것이 바로 소위 《법치국가》로 자처하는 일본의 진면모이다.

이에 대해 이전 일본문부과학성 차관까지도 최근 《일본에서는 차별을 일으키는 언동을 국가가 솔선 하고있다.》, 《권력자가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적감정을 가지고있다. 제도로부터 배제한다는 결론이 먼저 있고 후에 배제하기 위한 리유를 붙이고있다.》라고 하면서 만인에게 공정해야 할 법을 차별의 무기로 휘두르는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재일동포들의 교육권은 그 누구도 부정할수 없고 빼앗을수도 없는 신성한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흥정물이 될수 없다.

일본속담에 뱀은 자기 독에 죽는다는 말이 있다.

일본에 있어서 총련민족교육에 대한 탄압책동은 안으로 문을 닫아걸고 불을 지르는것과 같은 어리석은 자멸행위이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익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강력한 보호속에 있다.

만일 일본당국이 고삭은 군국주의 《몽둥이》로 끝끝내 총련의 민족교육을 말살하려 한다면 천벌을 면치 못할것이며 영원히 미래가 없는 차거운 얼음덩이로 력사에 매장되게 될것이다.

주체112(2023)년 4월 24일

총련의 권익옹호투쟁을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키는 법적담보



위대한 **김일성**주석님 탄생 111돐경축 해외동포권익옹호법 연구토론회를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가 지난 4월 22일 일본 도꾜에 있는 조선회관에서 진행하였다.

남승우 재일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을 비롯한 총련일군들과 조선대학교와 조선고급학교의 교원,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연구토론회에서는 재일조선인력사연구소 오규상소장이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내세워주신 공화국의 총련중시, 해외동포중시정책의 우월성과 재일조선인운동사에 쌓아올리신 빛나는 령도업적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공화국의 총련중시, 해외동포중시

정책의 사상적기초는 주체사상과 그를 구현한 주체의 해외교포운동사상이며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재일조선인운동사에서 쌓아올리신 빛나는 령도업적을 바탕으로 하고있다고 하면서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은 지난 시기의 해외동포정책, 재일조선인정책을 승화시켜 법화한 빛나는 결실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은 력사적으로 해외교포들의 실태를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해온 경위를 종합하고 해외교포들의 자주적권익,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방향에서 작성된 법이라고 하면서 이 법은 해외동포와 관련한 수많은 법중에서도 해외동포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현시기의 최고봉을 이루는 종합적인 통괄법이라고 강조하였다.

연구토론회에서는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제정배경과 력사적의의에 대하여》, 《해외동포권익옹호법으로 법화된 민족교육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특례조치에 대하여》, 《해외동포권익옹호법으로 법화된 해외동포의 경제적권익옹호의 내용과 총련동포상공인들에게 보장된 특례조치에 대하여》라는 제목들로 토론들이 진행되였다.

토론자들은 해외동포권익옹호법으로 법화된 특례조치, 특혜 및 우대조치에 대하여 분석, 해설하면서 이 법이 채택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마련하신 해외동포들에 대한 국가적인 혜택들이 앞으로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시책으로 실시되는 법적담보가 마련된 동시에 조국과 더불어 총련과 재일조선인운동의 전면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큰걸음을 내짚어나가는 법적담보가 마련되였다고 지적하였다.

남승우부의장이 연구토론회결속발언에서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의의와 생활력에 대하여 일군들과 동포들에게 널리 해설선전하며 애족애국활동이 더욱 활기있게 진행되도록 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연구토론회를 통하여 참가자들은 해외동포권익옹호법에 어려있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동포애의 정을 가슴뜨겁게 간직하게 되였으며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권익옹호를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감으로써 동포들을 총련조직의 두리에 더욱 튼튼히 묶어세워 애족애국활동을 보다 활기있게 벌려나갈 의지를 다시금 굳게 가다듬었다.

제 43회광주민주화운동기념 "유럽 5월민중제" 베를린개최

코레아뉴스편집실 5월 20일 베를린



1980년 5월 18일 빛고을 광주에서 전두환독재타도와 통일을 위한 시민들의 평화적인 시위를 전두환군사폭도들은 총과 포를 발사하여 수많은 시민들이 사망하고 부상당하는 끔직한 살상을 자행하였다.

그로부터 43년이 지난 오늘까지 시민들의 평화로운 시위를 향해 발포명령을한 책임자는 누구였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군부에 의한 국민살상의 진실을 왜곡하여 북의 지시를 받은 간첩들의 소행으로 오도하는 자들로 인하여 민주주의 지키려 희생당한 영령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가운데 43년이 지나갔지만 희생당한 영령들은 아직도 구천에서 통곡하고있을것이다. 독일에 사는 동포들이 1981년부터 해마다 광주항쟁렬사들의 정신을 계승하는 5.18민중제를

시작하여 올해로 43주년이 되였다.

행사는 김경태선생의 시회로 이종현선생의 개회인사를 하였다.

생전에 조국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고 김종환선생, 고강무의선생, 고 서의실목사, 고 이윤정선생과 고인들을 위한 추모의식을 하였다..

성악가 목진학선생이 "직녀"와 "추모가" 불러 조국을 떠난 해외동포들의 고향의 향수를 달래 주었고 5.18 민주통일영령들의 혼을 추모하였다. 첫 제로 임민식박사의 "한반도의 전쟁위기'와 둘째 강연으로 '한국민주주의의 후퇴"를 채명수박사가 하였다.

경기도 광명위안부 나눔의 집 사건실태와 공익제보사례를 체카사마리오선생이 발표하였다. 조계종이 위안부할머니들을 위한 나눔의 집 운영비리를 공익제보하여 경기도가 이재명도지사의 지시로 나눔의 집 운영을 바로 잡았으나 대선이 시작되자조계종의 이재명지지조건으로 나눔의 집 운영권을 다시 돌려받아 일본군성노예로 인간이하의 고통을 당한 할머님들의 이름을 팔아먹는 종교단체의 불법적행위에 참가자들을 분노시켰다.

행사는 문화마당과 저녁식사 촛불행동으로 끝을 내렸다.

《윤석열 대미, 대일 굴종외교 규탄한다!》, 《전쟁위기 몰아온 윤석열 심판하자!》

괴뢰지역에서 역도에 대한 분노 대중적항거로 분출

추악한 친미굴종행각으로 조선반도에 핵전쟁위기를 몰아오고 민생마저 통채로 외세에 내맡긴 윤석열역도의 죄행은 괴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윤석열역도의 미국행각 전기간 서울을 비롯한 각 지역에서 초불집회와 시위, 기자회견, 시국선언과 성명발표 등 역도의 사대매국적범죄를 폭로하는 투쟁이 끊임없이 벌어졌다.

윤석열괴뢰역도의 친미사대매국행각을 단죄규탄하는 각계층의 분노의 열기는 초불집회와 시위행진에서 더욱 격앙되였다.

집회에서 《초불행동》 상임공동대표는 《초불대행진이 민주주의뿐 아니라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위한 초불로 커졌다.》고 하면서 《민족의 존엄을 지키고 미국을 두려워하지 않는 초불로 발전해나가자.》고 호소하였다.

이어 발언자들은 윤석열이 이번 행각에서 미국제국주의와의 《절친》임을 호소하며 미국핵무기의 조선반도주변전개와 관련협의강화를 약속하는 《워싱톤선언》을 발표했다, 미국을 도와 핵공포까지 키우는 윤석열은 정말이지 위험한 도박에 평범한 사람들을 인질로 삼았다고 단죄하였다.

《서울만이 아니라 전지역 곳곳에서 초불집회가 열리고있다.》고 하면서 그 길에서 언제나 함께 가자고 그들은 호소하였다.

초불집회가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쟁을 부르는 윤석열을 몰아내자!》, 《특등매국노 윤석열퇴진!》, 《매국노 윤석열퇴진을 명한다!》라는 글이 씌여진 선전판들을 들고 《굴종외교, 종속외교, 특등매국노 윤석열, 미국의 예속을 자초하는 윤석열을 몰아내자!》 등의 구호를 웨치며 괴뢰정부청사를 비롯한 통치기관들과 보수의 아성들, 미국대사관에로의 기습시위를 단행하였다.

윤석열역도의 친일, 친미사대매국행위를 풍자한 선전물들을 든 참가자들은 서울의 곳곳에서 《국민은 분노한다. 주권무시 도청범죄 벌

린 미국은 사죄하라!》, 《100년이 흘러도 일제의 만행 용서못한다. 친일매국 윤석열을 몰아내자!》, 《굴종외교, 종속외교 윤석열, 국익 나 몰라라 하는 윤석열, 미국의 속국을 자초하는 윤석열을 몰아내자!》라고 웨치며 《굴종외교! 윤석열퇴진》이라고 씌여진 인쇄물을 곳곳에 붙여놓았다.

미국대사관앞과 괴뢰보수언론사앞에서 참가자들은 도청범죄를 저지른 미국이 사죄할것과 이를 두둔한 극우보수언론들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페간을 요구하였다.

신문 《로동자련대》는 초불집회와 시위행진현장들이 윤석열의 폭주하는 군국주의친미외교를 규탄하는 목소리로 가득찼다고 전하였다.

경기도 김포에서도 초불집회가 진행되였다.

참가자들은 《윤석열은 일본에 아낌없이 다 퍼주는 밥주걱인가. 이것도 모자라 미국에도 나라를 팔아먹었는가. 아니 나라를 팔아먹은게 아니라 나라를 통채로 갖다 바치는것 아닌가. 오로지 미국, 일본의 리익에만 충성하고있다.》, 《윤석열은 북과도 전쟁, 중국과도 전쟁, 이제는 로씨야도 적으로 돌리고있다.》, 《일본에 굴종 말고 미국에 맹종 말라.》고 성토하면서 윤석열역도를 최악의 《대통령》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민중행동》도 《망국적한미동맹, 윤석열규탄》초불집회를 가지였다.

참가자들은 윤석열이 밖에서 돌아치면서 란리를 일으키고있다, 미국에 가서 북과 중국, 로씨야를 적으로 규정하고 동아시아핵전쟁을 일으키려 날뛰고있다, 사대매국머저리 윤석열은 조선반도를 핵전쟁의 화약고로 전변시켰다고 단죄하였다.

집회장에서는 《윤석열, 미국의 변호사인가?》, 《윤석열, 일본총리가 더 어울려》, 《미국과 일본에 둘러리만 서는 윤석열은 돌아오지 말라.》등 분노의 함성이 련속 울려나왔다.

각계의 대중적항거는 위험천만한 대재앙을 몰아온 윤석열괴뢰역도의 미국행각이후 더욱 폭발적으로 전개되고있다.

민주로총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최로 서울, 경기, 광주, 인천, 대구, 대전, 부산, 충청북도 청주, 전라남도 려수 등 전지역적범위에서 5. 1총궐기집회가 16만여명 각계층 군중이 참가한 가운데 일제히 벌어졌다.

집회참가자들은 친미, 친일매국행위를 일삼는 윤석열역적패당이 조선반도정세를 악화시키고 로동자들을 죽음에로 몰아넣고있는데 대해 성토하면서 역도를 반드시 심판할 의지를 피력하였다.

민주로총 위원장은 《윤석열정권 1년 이 사회는 철저히 망해가고있다. 일본에는 굴욕외교로, 미국에는 조공외교로 제국주의자들에게서는 박수받고 민중들에게서는 비판받고있다. 경제도 주권도 평화도 모두 저버리고 오로지 한미일군사동맹을 부르짖으며 폭주하고있다. 외국만 나가면 사고치는 대통령을 출국금지라도 시켜야 할 상황이다.》라고 규탄하였다.

참가자들은 죽음을 택할것이 아니라 투쟁하자, 로동자들이 단결하여 윤석열퇴진투쟁에 나서자, 오는 7월 총파업으로 윤석열《정권》을 력사의 심판대에 세우자고 호소하였다.

민주로총은 격문을 발표하고 7월부터 총파업에 돌입할것이라고 밝혔다.

성균관대학교, 숙명녀자대학교의 교수, 연구사들과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종교인들이



련이어 시국선언을 발표하였다.

《민중행동》은 괴뢰대통령실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평화보다 전쟁과 대결을 택한 윤석열역도의 죄행을 신랄히 단죄하였다.

단체는 미국과 당국이 《확장억제력》강화라는 미명하에 미국의 전략자산전개를 확대하는 등 북과의 군사적대결을 고취하며 적대감을 로골적으로 드러냈다고 규탄하였다.

그 리면에는 윤석열을 부추겨 자기 리속을 채우려는 미국의 흑심이 깔려있다고 하면서 단체는 《확장억제력》으로는 전쟁을 막을수 없다, 미국을 위해 대북적대행위에 매달리는것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위기를 고조시킬뿐이다고 성토하였다.

기자회견참가자들은 역도의 외교재난, 외교참사를 더이상 참을수 없다고 하면서 《윤석열대미, 대일굴종외교 규탄한다!》, 《전쟁위기 몰아온 윤석열 심판하자!》, 《미국패권전략 선봉대 윤석열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웨치며 민중이 윤석열심판, 퇴진투쟁에 적극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였다.

한편 민주로총을 비롯한 각계 단체들은 집회를 가지고 이번 《워싱톤선언》으로 인해 당국이 미국의 핵정책에 깊숙이 빠져든데 대해 까밝혔다.

미국의 《인디아태평양전략》에 따라 당국이 전쟁돌격대로 앞장서게 됨으로써 조선반도가 심각한 핵전쟁위기에 처할것이다, 전쟁의 먹구름을 몰아오는 윤석열은 어디 《대통령》인가고 단체들은 단죄하였다.

괴뢰언론들은 각계의 투쟁소식을 전하면서 전쟁대결광, 사대매국노에 대한 민중의 저주와 분노는 하늘을 찌를듯 높아가고있다, 앞으로 윤석열심판을 위한 범국민적항쟁이 더욱 확대될것이다고 주장하였다.

《더이상 주저할 리유도 물러설 곳도 없다》, 《총파업투쟁으로 윤석열정권을 끝장내자》

괴뢰지역의 로동계가 역적심판을 위한 총파업투쟁 전개, 연 8만 5,000여명의 로동자 참가

서울에서 16일과 17일 윤석열괴뢰역도의 퇴진을 요구하는 로동계의 총파업투쟁이 전개되였다.

투쟁에는 민주로총과 산하 단체 로동자 연 8만 5,000여명이 참가하였다.

《단 하나의 전선, 윤석열퇴진투쟁에 궐기하자!》라는 주제로 이틀간에 걸쳐 역도퇴진을 위한 총파업결의집회들이 진행되였다.

발언자들은 윤석열《정권》이 로동자를 노예로 만들고있다, 현 《정부》가 망국적인 외교로 실패를 거듭할 때마다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 로동자들을 희생물로 삼고있다고 분노를 터뜨렸다.

화물련대, 건설로조, 금속로조 현장들에서는 경찰수사대가 로동자를 련행하고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극악무도한 윤석열을 퇴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윤석열《정권》이 들어앉은 때로부터 1년동안 단 하루도 편안하지 않았다, 현 《정권》이 있는 한 우리의 고통은 멈추지 않을것이며 죽음도 계속될수밖에 없다고 성토하였다.

민주로총위원장은 《민주로총 120만조합원이 싸우겠다. 윤석열정권을 끌어내리고 로조활동을 파렴치로 몰아댄자, 사냥개처럼 경찰을 풀어 로조탄압에 앞장선자들을 무릎꿇게 하자.》고 주장하였으며 민주로총 건설로조위원장은

《윤석열정권 1년만에 재앙만이 차넘쳤다. 건설현장도 온갖 불법이 판치는 과거현장으로 회귀하고있다. 양회동렬사가 피운 불씨를 7만홰불로 이어받아 건설자본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윤석열을 퇴진시키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자.》고 강조하였다.

집회참가자들은 《오늘보다 못한 래일을 살지 않기 위해 우리는 힘있게 투쟁해야 한다.》, 《투쟁으로 쟁취해야 가능한 일이다.》, 《더이상 주저할 리유도 물러설 곳도 없다.》,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자.》고 웨쳤다.

그들은 로동계급이 제몫을 했다면, 민주로총이 제대로 투쟁을 했다면 이런 비극은 오지 않았을것이라고 하면서 빈민, 녀성, 청년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과 손을 잡고 윤석열퇴진투쟁에 나서겠다, 더이상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희망을 가지고 싸워나가자고 호소하였다.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참가자들속에서는 《장시간 기계처럼 일하고도 정당한 대가조차 받지 못하는 로동자로 살수 없다.》, 《윤석열정권을 반드시 퇴진시키자.》, 《120만 민주로총의 들불로 렬사의 뜻을 이루자.》, 《윤석열이 이 땅을 재앙에로 몰아넣고있다.》,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 아닌가.》, 《총파업투쟁으로 윤석열정권을 끝장내자.》 등의 함성이 터져나왔다.

이어 참가자들은 《렬사의 념원이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렬사의 념원이다. 건설로조탄압 분쇄하자.》고 웨치며 시위행진을 벌리였다.

민주로총 건설로조는 16일 서울에 모여온 3만 5,000여명 로조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건설로조 탄압중단! 강압수사책임자처벌! 윤석열정권 퇴진! 양회동렬사정신계승, 민주로총 건설로조 총파업결의집회》를 가지였다.

단체는 17일 민주로총의 주최로 진행되는 총파업투쟁에 합세하였다.

언론들은 로동계가 들고 일어났다, 로동자들의 투쟁이 《상경투쟁》, 《로숙투쟁》 등 다양해지고있다, 문화예술인들이 《전선은 하나》라는 제목의 노래를 부르며 윤석열퇴진투쟁에 나선 로동자들을 고무해주었다고 보도하였다.

미국산무기구입에 미쳐날뛰고있는 윤석열역적패당을 폭로

최근 남조선언론들이 미국산무기구입에 미쳐날뛰고있는 윤석열역적패당을 신랄히 폭로하였다.

언론들은 윤석열역적패당이 2022년 5월부터 2023년 4월 4일까지 12건의 해외무기구입을 결정하였는데 구입한 무기가 모두 미국산이라고 하면서 《윤석열정부 1년기간미국무기를 구입하는데 18조 6 725억원(남조선돈)이 들었다.》, 《이전 정부의 5년동안에 구입한것보다 7배이상많다.》고 까밝혔다.

특히 《바이든이 남조선을 행각한 윤석열정부의 첫해에 14조 9 327억원의 미국산무장장비구매가 결정되였다.》고 개탄하였다.

그러면서 언론들은 지금 각계층속에서 남조선이 미국의 거대한 무기시험장, 무기판매시장으로 전락되고 있으며 《윤석열정부가 미국산무기구입에 천문학적액수의 혈세를 쏟아 부을 부을 좋아할 것은 미군수독점체뿐이고 녹아날 것은 피페해진 서민들의 삶뿐》이라는 저주와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다고 전하였다.



광주인민봉기

광주인민봉기는 파쑈독재를 반대하고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1980년 5월에 벌린 남조선의 전라남도 광주시민들의 대중적인민봉기이다.

광주인민봉기는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진행되였다.

1980년 3월부터 남조선전역에 료원의 불길처럼 타번진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은 전두환도당이 《유신》파쑈독재를 지탱하기 위하여 5월 17일 남조선전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한것을 계기로 하여 광주땅에서 반《정부》적인 대중적무장인민봉기로 전환되였다.

인민봉기는 5월 18일 전남대학교 학생들의 시위투쟁으로부터 시작되였다. 이날 《비상계엄령》의 해제를 요구하여 시위투쟁에 떨쳐나선 광주시내 청년학생들은 군사파쑈도당이 가장 악질적인 공정부대(락하산부대)를 내몰아 류혈적인 탄압을 가하자 이에 격분하여 억압자들에게 폭력으로 항거하여 나섰다.

청년학생들의 폭동적진출은 삽시에 온 광주시를 휩쓸었으며 여기에는 시내의 모든 인민들과 시주변의 로동자, 농민들까지 합세하여 그 수는 5월 21일에 무려 30여만명에 이르렀다.

봉기군중들은 도청, 시청을 비롯한 괴뢰통치기관들을 들이쳐 그를 장악하였고 놈들의 무기고를 습격하고 수천정의 무기를 탈취하였을뿐아니라 《계엄군》의 많은 땅크와 차량들까지 빼앗아 타고 용감히 싸움으로써 5월 21일에는 《계엄군》을 몰아내고 광주시를 완전히 자기들의 통제밑에 넣었다.

항쟁의 불길은 도내 대부분의 지역과 전라북도에까지 파급되였으며 목포, 라주, 화순, 령광, 담양을 비롯한 17개 시, 군이 봉기군중의 수중에 장악되였다.

광주의 봉기군중들은 자치조직인 《시민위원회》와 《민주투쟁위원회》를 내오고 자위적인 무장조직인 《시민군》, 《특별경계부대》, 《돌격대》를 무어 련일 《유신》파쑈독재를 규탄하는 대규모적인 군중집회를 가지였다.

이에 당황한 전두환일당은 《계엄군》을 더욱 증강하여 2중3중으로 광주시를 완전히 포위하고 군사적위협과 경제적봉쇄책동을 감행하였으며 봉기자들을 회유해보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봉기군이 완강히 항거해나서자 전두환군사파쑈도당은 미제의 사촉밑에 5월 27일 새벽 수많은 땅크와 장갑차, 직승기를 동원하여 수만명의 방대한 정규무력을 투입하였으며 대구경포사격과 전쟁력사에서도 전례드문 질식가스탄사격을 감행하면서 봉기군을 야수적으로 탄압하였다.

봉기군중은 5천여명의 희생자와 1만 4천여명의 중경상자를 내면서 또 식량이 떨어지고 먹는 물과 전기공급까지 끊어진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도 자기들의 투지를 굽히지 않고 괴뢰군이 광주시를 류혈적으로 점령하는 마지막순간까지 굴함없이 싸웠다.

전두환도당은 광주시에서뿐아니라 봉기에 호응하여 항쟁에 떨쳐나섰던 목포, 화순, 라주, 려수, 순천, 장성 등지의 주민들도 류혈적으로 탄압하면서 1 700여명이나 살상하였다.

광주시와 그 주변의 각계각층 주민들 100여만명이 참가한 광주인민봉기는 폭력에는 폭력으로 맞서 억압자들이 강요하는 낡은 《유신》파쑈통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민주정치를 실시하기 위한 높은 형태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이였으며 전제정치를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동방의 근대투쟁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가장 크고 격렬한 대중적봉기였다.

봉기는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통치와 그 앞잡이 군사파쑈도당의 통치지반을 크게 뒤흔들어놓았고 놈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였다.

심양시조선족세박원민속문화축제 성황리에 개최



4월 30일, 심양시공공문화써비스센터와 심양시조선족문화예술관이 공동 주최한 '심양시조선족세박원민속문화축제'가 세박원중심광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주최측은 '인민이 행복한 도시, 나의 아름다운 심양'이란 주제로 조선족전통무용 농악무공연, 예술혜민특별문예공연, 성급무형문화재인 조선족민속장기・윷놀이 전시, 그네뛰기 시범 전시, 조선족전통문화체험, 조선족미식전, 찰떡치기•천인비빔밥 퍼포먼스 등 조선족 민속특색이 짙은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놀거리를 준비해 관광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박석호 심양시조선족문화예술관 관장은 "이번 축제에 민속문화의 정수가 담긴 심양조선족만의 독창적이고 신선한 콘텐츠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민속문화정품을 선보였다. 심양의 문화관광분야의 발전에 자그마한 힘이라도 보탤 수 있어 마음이 매우 뿌듯하다"고 소감을 표했다. 또한 이번 축제의 흥겨운 분위기가 시민과 관광객들은 물론 여러 도시에 전해져 경제적 파급효과로 이어지길 희망했다.

이번 행사는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굳건히 다지고 중공중앙판공청, 국무원판공청의 <중화우수전통문화 전승발전공정을 실시할 데 관한 의견>를 착실히 관철락착하며 조선족 전통민속문화를 진일보 계승, 발전시키고 심양시 조선족군중들의 문화생활을 풍부히 하며 민족응집력을 강화하고 문화와 관광의 융합발전을 촉진하여 새시대 심양 전면진흥, 전방위진흥에 조력하자는 데 취지를 두었다. - 료녕문보

단동시조선족문화예술관 민족기악단 창단...전통 악기의 흥과 멋





지난 5월 8일 단동시조선족문화예술관이 민족기악단을 창단했다.

조선족 민족기악 연주의 보급과 전승, 민족음악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다.

민족기악단은 지역 악기 연주 애호가 25명의 단원으로 출범했다. 모두 민족음악을 통해 봉사하고 싶은 열정으로 뭉쳤다. 장구, 징, 꽹과리, 가야금, 동소, 원고, 색소폰, 바이올린 등

악기도 다양하다.

창단후 정기련습과 정기공연을 진행하고 각종 지역 축제와 행사에 참여하면서 민족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고 사물놀이, 농악무, 민족기악 공연과 민족 성악합창을 결합한 무대도 선사할 계획이다.

단동시조선족문화예술관 부관장 전림은 "민족기악단의 설립으로 우리 전통 악기의 흥과 멋을 보여주겠다"면서 "우리 민족의 우수한 곡을 발굴하고 민족특색을 지닌 음악 작품을 창작하며 조선족 군중의 음악생활을 풍부히 하는데 힘을 보태고 싶다"고 소개했다. -료녕문보

2023년 2분기 '중국 좋은 사람' 후보, 조선족 2명

5월 9일, 2023년 제2분기 '중국 좋은 사람' 길림성 후보명단이 공시되였는데 조선족으로는 서숙자와 최금철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아매'의 '홍색정서'



서숙자, 녀, 조선족, 1952년 10월 출생, 중국공산당원, 길림성 연길시로병의집봉사센터당지부 서기. 신앙을 굳건히 지키고 영원히 당을 따라가는 혁명정신을 전승하기 위해 2002년부터 서숙자는 자비로 400여명의 건재한 로병사들의 집을 찾아 3800여건의 항일전쟁, 해방전쟁, 항미원조전쟁기간 희생된 연변적 영웅들의 사적을 수집하고 정리했다. 연변주 각 학교, 거리, 사회구역을 위해 의무적으로 홍색이야기를 선전, 강연했고 연길시 첫번째 로병의 집을 세워 혁명로병사 및 그 가족들을 위해 따뜻한 봉사와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선행으로 홍색유전자를 전승하고 붉은 혈맥을 이어갔다. 길림성도덕모범칭호를 수여받았고 '길림 좋은 사람', 길림성미성년자사상도덕건설사업 선진개인, 길림성우수자원봉사자로 입선되였다.

홍색문화의 전파자, 홍색정신의 전승자



최금철, 남, 조선족, 1949년 12월 출생, 중국공산당원, 길림성 왕청현차세대관심사업위원회 상무부주임. 비록 고희를 넘겼지만 열정은 식지 않았다. 자신의 지식비축을 리용하여 오래동안 왕청현 각 향진에 깊이 들어가 혁명렬사유적을 답사하고 영렬들을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뜻을 이어갔다. 각 학교와 교육기지를 수차례 찾아 학생과 참관자들을 위해 항전이야기를 전해주고 홍색기억을 더듬었으며 홍색문화를 발양하고 홍색혈맥을 전승했다. 그는 길림성도덕모범칭호를 수여받았고 '길림 좋은 사람', 길림성차세대관심특수공헌상, 길림성우수지원자로 입선되였다.

청도 조선족 취직관 서서히 변화

해외에서는 마른일 궂은일 가리지 않고 일하다가도 국내에서는 체면 때문에 직종을 가려가며 일하던 청도조선족들의 취직관이 서서히 변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 "일자리가 있어 행복합니다"

두 자녀의 엄마인 리녀사(54세, 길림성 연길출신)는 남편이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고 큰 자식도 직장에 다니고 있기에 생활에 별로 부담이 없다. 부자는 아니여도 집도 있고 자가용도 있으며 대출을 갚아야 할 경제적 부담도 없다.

그런 리녀사가 마트에 출근하자 청도조선족사회에서 이슈가 되였다.

"할 일 없이 집에서 그냥 논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취직했는데 너무 좋습니다."

리녀사에 따르면 놀고 있을 때는 날마다 쏘파에 누워 텔레비죤을 시청하는 것이 일상의 전부였으나 지금은 칼같이 출퇴근을 하는 재미에 푹 빠져있다고 한다. 처음에는 낯익은 사람들과 마주치면 쑥스러워 어쩔가 하는 생각도 들었으나 이젠 너무나도 당당해졌다고 했다.

한달 로임 3800원, 로임받는 재미도 있으나 그보다도 로동을 통해 얻은 것이 너무 많은 것이다. 고질병이던 오십견도 사라졌고 하루 내내 흐리멍텅하던 정신도 한결 맑아졌다. 일단 몇달만 해보려던 일이 벌써 1년을 넘겼다.

◆ "도우미로 뛰고 있어요"

장녀사(52세, 흑룡강성 가목사 출신)는 해외에서 일하다가 귀국한 지 얼마 안된다. 열심히 일하여 목돈은 벌었지만 여기저기 병을 얻었고 편안히 놀며 살고 싶었지만 하루하루 축나는 돈 앞에서 불안감은 날에 날마다 커져갔다. 그렇다고 또다시 해외에 나가 뼈빠지게 일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음식점을 경영하는 동생이 단체손님을 받았으니 도와달라고 청했다. 할 일 없이 허송세월하던 그는 두말없이 도와나섰다. 그런데 웬걸? 동생이 한시간에 20원씩 계산하여 시급을 주는 것이 아닌가?

"처음에는 견결히 싫다고 거절했지요. 그런데 지금은 돈을 받는 데 습관이 되였습니다." 장녀사는 이젠 도우미 생활에 습관이 되여 파출부로도 뛴다고 했다.

"도우미 관련 사업도 지금 계획중입니다." 장녀사가 자신의 생각을 숨기지 않았다. 사무실 없이 인터넷 공간에 그룹을 묶어 관리하는 형식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는 것이였다.

"발달 국가에 가서 일한 보람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보고 들은 것이 많은 것 만큼 일능률이 높다는 평가를 듣습니다."

도우미로 뛰며 서로 돕고 어울리면서 일하고 싶다는 그녀는 아름다운 꿈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 "오늘 로임을 탔습니다"

청도 성양구 도원거에 자리잡은 모 커피숍에서 애된 얼굴의 한 청년이 근무하고 있다. 올해 20세인 김군이다.

그의 한달 로임은 4000원, 커피숍 사장이 챙겨주는 보너스를 더하면 4500원을 받는다. 씀씀이가 헤픈 요즘 젊은이들 같으면 혼자 써도 모자랄 돈이지만 김군은 '계획경제'로 집안을 즐겁게 해준다.

고향에 계시는 할머니에게 300원, 학교 다니는 동생에게 200원, 부모님께 1000원을 드리고 나면 나머지 3000원은 당연히 그의 몫이다.

"왜서 출국하여 돈벌이를 하지 않는가고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어디에서든 돈을 착실히 벌면 되지 않겠습니까?"

김군은 일전 스스로 번 돈으로 오토바이를 사서 친구들의 부러움을 자아냈다. 김군에 따르면 부모에게 손을 내밀지 않고 살아가는 그가 친구들의 모델이 되여 현재 많은 친구들이 서비스업종에 취직중이라고 한다.

개혁개방 이래 국내의 조선족들은 해외진출로 물질적 부를 이뤘다. 그러나 귀국 후 이들은 현실과 과거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특히 해외 로임보다 몇배 적은 국내 로임에 만족할 수 없어 취직을 포기하고 있다. 하여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귀국한 후 벌지는 않고 쓰기만 하는 '월광족'으로 전락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였다.

서비스 현장에 나타난 조선족, 비록 아직까지는 미비하지만 변화의 바람은 분명 불어오고 있다. / 길림신문

상해시조선족로인협회 총화활동 성대히 가져



상해시조선족로인협회에서는 일전 송강구 구리정가두 활동실에서 지난 한해의 사업을 총화하는 활동을 가졌다. 상해시 송강구 민족종교사무판공실과 민족단결촉진회에서 주관하고 상해시조선족로인협회에서 주최했으며 상해시 송강구 구리정가두사업위원회, 상해시 송강구 민족단결촉진회 구리정분회에서 활동장소를 제공했고 상해시조선족문화교육발전촉진후원회에서 6만원을 후원했다.

이날 행사에서 상해시조선족로인협회 구송회 회장은 "이번 행사는 협회 설립 22년간 제일 큰 규모의 행사이며 협회의 새로운 력사를 써내려가기 위한 동원대회"라고 밝히면서 "우리의 행복을 노래에 담아 목청껏 노래하고 우리 민요가 국제대도시 상해의 창공에 울려퍼지게 합시다. 당과 정부의 관심 속에서 우리의 여생을 황포강반에서 즐겁게 보냅시다."라고 했다.

상해시조선족문화교육발전촉진후원회 김홍란 회장은 "2022년 12월에 개최하려고 했던 상해시조선족로인협회 년말총화가 코로나의 영향으로 취소되여 많이 아쉬웠는데 오늘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성대히 열리게 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고 하면서 "우리 후원회는 언제나 어르신들을 응원하겠습니다."고 표했다.

이날 로인협회 산하 15개 분회의 총 560명 회원이 행사에 참가했으며 40여개의 이채로운 문예종목이 펼쳐졌다. <돈돌라리>, <접시춤>, <도라지춤> 등 조선족 무용과 <달타령>, <노들강변> 등 조선족 민요들을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공연되여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대합창 <새시대를 향하여>, 악단연주 <나와 나의 조국> 등 종목들도 관객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이날 행사에 참가하여 공연을 관람한 로인협회 칠보분회 최해룡 회원은 "저는 고향이 연길인데 퇴직 후 상해에 정착하게 되였습니다. 안해와 아들, 며느리, 손자도 모두 상해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연은 4시간 동안 성대히 개최됐는데 이번 협회 활동으로 문화생활이 매우 풍부해졌습니다. 만년에 아름다운 국제도시 상해에서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고 기쁨에 겨워 말했다. /연변일보

제4회 대련시조선족김치축제 개최



조선족 김치문화 전승을 취지로 한 제4회 대련시조선족김치문화축제가 지난 4월 18일 대련시조선족기업가협회와 대련시 금보신구 권연향문화발전협회의 공동 주최로 대련 진스탄만달해빈그룹에서 열렸다.

대련시 금보신구, 대련시조선족기업가협회 책임자, 대련시 조선족 료식분회 성원들과 시민 500여명이 행사에 참가해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이날 대련시조선족기업가협회 김동성 회장은 개막사에서 "한개 민족의 생존과 발전은 그 민족의 문화를 떠날 수 없다. 김치와 된장 등

전통 음식문화를 잘 전승해야 한다.” 고 말했다.

축제는 현장에서 김치 재료 선택, 양념 만들기, 버무리기, 숙성시키기, 저장 방법 등을 알기쉽고 구체적으로 강의했다. 조선족 된장 만들기와 혼례식 올리기 등 전수 행사도 있었으며 사물놀이, 농악무, 기악연주 등 문예 종목도 공연해 분위기를 확 띄워주었다.

현장에서 100여명의 타민족들도 찰떡이랑 김치랑 맛보면서 “조선족들은 춤 잘 추고 노래 잘 부를 뿐만 아니라 음식도 잘하며 특히 김치가 특색”이라며 엄지손가락을 내밀었다. /길림신문





“조선족 마을에 있어 사람이 적고 많음은 더이상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관건은 사람이 많든 적든 관계없에 땅을 지키고 관리하며, 국가의 복지정책을 촌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인력이 유지되여야 한다.” 고 박광성교수가 일전 조선족농민들에게 조언했다.

이는 중국조선민족사학회 주최로 진행된 ‘전면적인 초요사회 건설과 민족지역 빈곤부축공략 경험 쎄미나’ 에서 운남민족대학 사회학원의 박광성교수가 ‘농촌의 지속적 존재와 발전을 견인’ 할 데 대한 발언 시 지적한 것이다.

발언에서 박교수는 다음과같이 주장했다. 도시화과정에서 농촌의 발전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된다. 얼마전에 개최된 19기 5중 전회에서 발표된 ‘14차5개년 계획과 2035년까지의 전망계획’ 건의안만 보아도 국가적으로 향촌발전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조선족의 경우 급속한 도시화과정을 거치다 보니 농촌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매우 근시안적인 사고로 심히 걱정되는 일이다.

전문가 조선족농민에 조언 "마을 있어야 복지정책도 향수"



박교수는 "조선족에게 있어 농촌의 지속적 존재, 발전이 중요한 리유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다음과같이 분석했다.

하나는 농촌에 호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 마을의 존재는 국가의 복지정책과 공공써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근거와 기초로 된다.

현재 농촌과 농민들에 대한 국가의 복지정책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국가의 복지정책과 공공써비스가 호적을 기초로 제공되고 있으며 마을단위에서 실행되여야 한다는 점이다. 가령 마을이 없어져 국가정책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실행할 실체가 없어진다면 복지정책과 공공써비스를 효과적으로 전달받을 수 없다. 힘이 있어 일할 수 있을 때에는 복지정책과 공공써비스의 중요성이 별로 각인되지 않지만, 나이 들어 힘이 없을 때에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삶의 기초로 된다. 따라서 미래에 있어 마을이란 옛날처럼 삶의 터전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복지정책과 공공써비스를

효과적으로 전달받을 수 있는 실체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선진국에서들조차 국가의 복지 정책과 공공써비스는 사람들의 삶의 중요한 기초로 된다. 따라서 이를 절대 홀시하지 말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달받기 위하여 마을을 유지하고 살려야 한다.

한편 마을이 살아있어야 토지의 사용권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지킬 수 있다. 토지는 농민들의 가장 기초적인 재부이다. 현재 토지임대료도 점점 오르고 있는 추세여서 퇴직금이 따로 없는 농민들에게 있어 임대료는 로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담보이다. 그러나 토지임대와 수금 그리고 발급도 마을이 살아있어야 가능하다. 가령 마을에 아무런 사람도 남아있지 않다면 그 누가 토지를 임대해주고 임대로를 받아들이겠는 가? 따라서 마을이 없어지면 토지관리도 위태해진다.

박교수는 "현재 조선족 마을에 있어 사람이 적고 많음은 더이상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관건은 사람이 많든 적든 관계없에 땅을 지키고 관리하며, 국가의 복지정책을 촌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인력이 유지되여야 한다"면서 "이를 위하여 촌민들이 일정한 금액을 지출하여 적립금을 만들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의 보수를 마련해줘야 한다. 만약 이런 노력과 시도조차 하지 않아 언젠가 마을이 정말 없어진다면 그것이야 말로 작은 것을 지키려다 큰 것을 잃는 과오를 범하게 된다. 조선족마을들에서 새로운 집체경제를 만들어 마을을 유지관리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조언했다. /길림신문

"매일 두끼는 집체화식" 천북 영진촌 살어리랐다~

길림성 교하시천북진 영진촌은 산좋고 물좋은 산골동네입니다. 영진촌의 로인협회회원은 22명가량 되는데요 그중 년세가 80세이상 회원이 두분이고 대다수가 70세 좌우입니다.

8월 6일 동네방문을 간 기자에게 협회 윤동해회장은 "우리 협회에서는 매일 두끼씩 집체화식을 해오고 있다"며 자랑을 했습니다.

협회활동실에서 매일 화토, 마작, 문구 등 오락활동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특히 작년부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사이에는 매일 점심과 저녁은 집체로 화식을 해오고있다는것입니다.

협회의 경비는 회원들이 일년에 100원씩 내는 이외에 촌민위원회에서 매년 4천원가량 지원하고 있답니다.

또 이국타향에서 고향을 찾아온 동네분들이 내는 찬조금도 한몫 보탬이 되고있답니다.

채소는 협회의 집체 채마전에서 자급자족되고 있으며 회원들이 자기집의 채소도 날라와 식탁에 올리고있답니다.



맛좋은 료리를 식탁에 차려놓는 일은 본촌의 부녀주임인 조경숙과 문태순이 재치있는 솜씨 덕분입니다.

낚시질에 능한 본촌의 50대 주민 우종란씨가 가끔 물고기를 잡아와서 협회 식탁의 별미가 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본촌 로인협회에서는 매년 여름철이면 풍경 좋은 저수지나 유원지를 찾아 산보놀이를 한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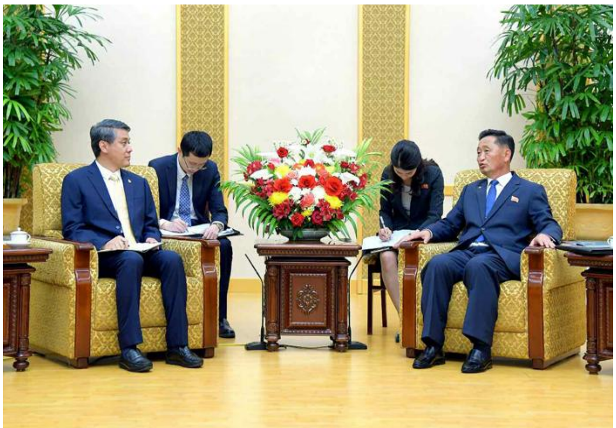
덕분에 외국이나 외지에 가있는 자식들은 휴대폰영상을 통해 부모들이 고향에서 만년생활을 즐기는것을 목격하고 안심을 하고 힘을 내여 돈벌이를 하고있답니다. / 길림신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총리 김덕훈동지가 중화인민공화국 신임특명전권대사를 만났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김덕훈동지는 1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의례방문하여온 왕아군 우리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신임특명전권대사를 만났다.

김덕훈동지는 왕아군대사와 따뜻하고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외무성 부상 박명호동지, 관계부문 일군들과 풍춘대공사를 비롯한 중국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 최선희동지가 중화인민공화국 신임특명전권대사를 만났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 최선희동지는 8일 의례방문하여온 왕아군 우리 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신임특명전권대사를 만나 담화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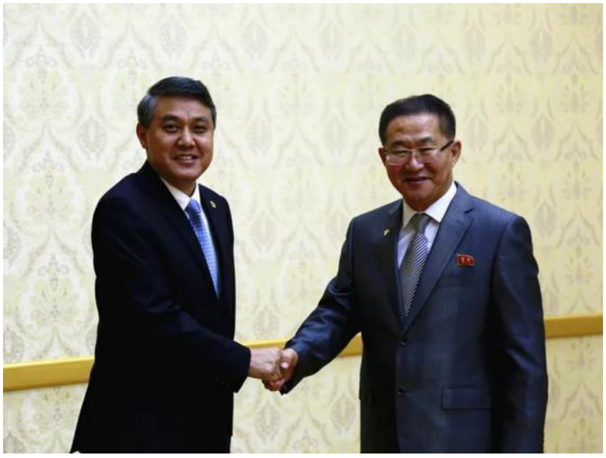
최선희외무상과 왕아군대사는 조중 두 당, 두 나라 수령들의 숭고한 의도를 받들어 전통적인 조중친선협조관계를 더욱 승화발전시켜나가려는 확고부동한 립장을 표명하였다.

담화는 동지적이며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외무성 부상 박명호동지, 외무성 일군들과 풍춘대공사를 비롯한 중국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왕아군대사를 위해 마련한 환영연회가 있었다.

王亚军驻朝大使拜会朝鲜教育委员会委员长金昇斗



2023年5月16日，中国新任驻朝鲜大使王亚军拜会朝鲜教育委员会委员长金昇斗。中国驻朝鲜使馆冯春台公使，朝鲜教育委员会对外教育局副局长金平植等参加。王大使表示，中朝是山水相连的友好邻邦。习近平总书记和金正恩总书记实现5次历史性会晤并达成一系列重要共识，为中朝关系发展指明了方向、注入了动力。中方愿同朝方一道，落实好两党两国最高领导人重要共识，推动中朝关系不断取得新发展。王大使简要介绍了党的二十大就教育工作所做战略部署，表示教育交流合作是中朝关系的重要组成部分，朝鲜教育委员会和中国教育部长期保持良好合作关系，希望双方继承优良传统，加强交流合作，为两国社会主义建设事业培养更多优秀人才，为推动中朝传统友好关系深入发展做出新贡献。金委员长欢迎王大使履新，积极评价朝中教育交流合作取得的成果，表示朝鲜教育委员会愿同中方有关部门和中国驻朝鲜使馆一道，秉承两党两国最高领导人的崇高意志，落实好《朝中2020—2030年教育交流与合作协议》，为促进朝中教育交流合作、深化两国传统友谊共同作出不懈努力。金委员长高度评价中国经济社会发展成果，祝愿中国人民在以习近平总书记为核心的中共中央领导下，在实现中华民族伟大复兴的斗争中不断取得新的更大成就。

来源：中国驻朝鲜大使馆

王亚军大使拜会朝鲜对外经济相尹正浩

2023年5月11日，中国新任驻朝鲜大使王亚军拜会朝鲜对外经济相尹正浩。中国驻朝鲜使馆冯春台公使、周长亭公参，朝鲜对外经济省二局副局长金正学等参加。

王大使表示，中朝是山水相连的友好邻邦。近年来，在两党两国最高领导人的直接关心和战略引领下，中朝关系进入新的历史时期并持续发展。中朝经贸合作是双边合作的重要组成部分，给两国人民带来了实实在在的福祉，也对双边关系的巩固和发展发挥了重要作用。中方愿同朝方一道加强两国相关部门之间的交流合作，共同推动中朝经贸合作不断向前发展。



尹相欢迎王大使履新，并表示，朝中友谊是两党两国老一辈领导人亲手缔造和培育的，有着深远的历史根基和优良传统。两党两国最高领导人的5次历史性会晤有力推动了两国关系发展。朝鲜对外经济省同中国商务部长致力于推动双边经济交流合作，期待双方以《朝中经济及文化合作协定》签署70周年为契机，一如既往为朝中友好互惠经济关系进一步发展做出新的贡献。

王亚军大使拜会朝鲜对外文化联络委员会委员长徐虎元



2023年5月9日，中国新任驻朝鲜大使王亚军拜会朝鲜劳动党中央候补委员、对外文化联络委员会委员长徐虎元。中国驻朝鲜使馆冯春台公使、孙洪量公参，朝鲜对外文化联络委员会亚洲局局长兼朝中友好协会副会长金光日、朝中友好协会副秘书长林光浩等参加。

王大使表示，在习近平总书记和金正恩总书记的战略引领下，中朝关系掀开新的历史篇章并不断深化发展。中方愿同朝方一道，落实好两党两国最高领导人重要共识，维护好、巩固好、发展好中朝传统友好关系，更好造福两国和两国人民。国之交在于民相亲，朝鲜对外文委和中国人民对外友好协会长期保持良好合作关系，希望双方进一步发挥传统民间友好优势，推进民间各领域合作往来，让中朝友谊更加深入人心。

徐委员长欢迎王大使履新，表示朝鲜对外文化联络委员会愿同中方有关部门、团体和中国驻朝鲜使馆一道，按照两党两国最高领导人的崇高意志，为加强和发展朝中传统友好合作关系共同作出不懈努力。徐委员长还高度评价中国经济社会发展成果，祝愿中国人民在以习近平总书记为核心的中共中央领导下，在全面建设社会主义现代化强国的新征程上取得新成就。

王亚军大使走访慰问旅朝华侨





2023年4月24日，中国驻朝鲜大使王亚军走访慰问平壤市旅朝华侨，实地了解侨胞生活情况，表达使馆关心。驻朝鲜使馆公使冯春台、领事参赞朱家耀，朝鲜华侨联合会中央委员会委员长赛铁军、平壤市外事局责任指导员尹柱日等陪同。

王亚军大使先后走访慰问了华侨魏玉胜、丁原春、李保和、刘愿平，与他们亲切交谈，详细了解他们的生活情况并赠送了慰问品。王大使表示，旅朝华侨是中朝友好的重要桥梁和纽带，为促进两国经贸、人文等领域交流合作发挥着重要作用。希望大家在朝鲜安居乐业，继续为朝鲜社会主义建设和促进中朝友好贡献力量。中国驻朝鲜使馆将一如既往秉持以人为本、外交为民宗旨，尽心竭力为全体旅朝侨胞提供服务，始终做大家的贴心人。

旅朝华侨们感谢王亚军大使一行来访以及使馆长期以来对他们的关心和帮助，表示将继续为朝鲜经济社会发展和中朝友好作出积极努力.

조중친선의 활력있는 전진을 추동한 력사적계기

세기와 세대를 이어 줄기차게 강화발전되여온 조중친선의 빛나는 년대기에는 력사적인 첫 중국방문을 진행하신 때로부터 40여일만에 또다시 중국을 방문하시여 조중관계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이 숭엄히 아로새겨져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5년전인 2018년 5월 7~8일 중화인민공화국 대련시를 방문하시였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가 대련에 와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친절하게 맞이하였으며 최대의 성의를 다하여 극진히 환대하였다.

두 나라 수령들께서는 솔직하고 우호적인 분위기속에서 상봉과 회담, 담화를 진행하시였으며 습근평동지가 성대한 환영연회와 뜻깊은 오찬을 마련하였다.

습근평동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두 당, 두 나라사이의 의사를 소통하고 조률하기 위해 친히 중국에 오신데 대해 다시한번 사의를 표하면서 정세가 어떻게 흐르든 중조관계를 공고발전시키려는것은 두 나라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립장이며 유일하게 정확한 선택이라고 강조하였다.

환영연회에서 한 축하연설에서 습근평동지는 중조관계의 새롭고 보다 큰 발전을 추동하고 두 나라와 두 나라 인민들에게 행복을 마련해주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적극 기여할 립장을 표명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연회에서 하신 답례연설에서 중국과 같은 위대한 린방, 중국동지들과 같은 미덥고 진실한 벗을 가지고있는 긍지와 자부심을 다시금 되새기게 된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력사적장정에서 친근한 중국동지들과 굳게 손잡고 나아갈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방문을 성과적으로 마치시고 귀국길에 오르시면서 습근평동지에게 감사서한을 보내시여 조중 두 나라 인민의 공동의 재부인 조중친선이 앞으로도 두 당, 두 나라, 두 인민들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끊임없이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습근평동지와 진행하신 력사적인 상봉은 두 당, 두 나라의 전략적선택인 조중친선을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보다 활력있게 전진시켜나가는데서 중요하고 의의깊은 계기로 되였다.

오랜 력사와 전통을 가지고있는 조중친선은 앞으로도 두 당, 두 나라 수령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투적우의와 혈연적뉴대의 위력으로 부닥치는 도전과 난관을 과감히 헤치며 끊임없이 승화발전될것이다. (끝)

중국 대만문제와 관련한 남조선괴뢰의 립장 비난

얼마전 중국 외교부대변인은 윤석열이 영국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시 대만문제에서 횡설수설한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세계에는 하나의 중국만이 있으며 대만은 중국령토의 불가분리의 한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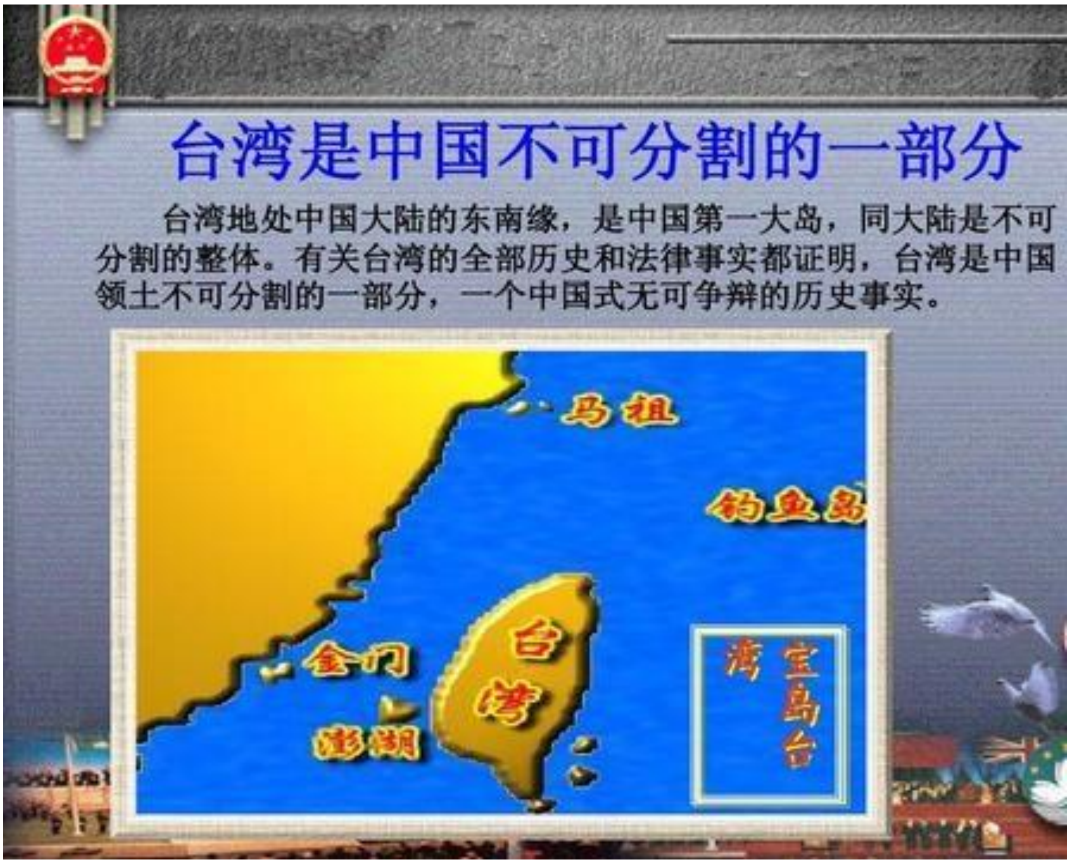
대만문제는 순수 중국의 내정이며 중국의 핵심 리익중의 핵심리익이다.

대만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국사람들 자신의 일이므로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

최근 년간 대만해협정세가 긴장한 근본원인은 섬안의《대만독립》분자들이 외부세력의 지지와 묵인 밑에 분렬활동을 벌리고 있기때문이다.

《대만독립》행위와 평화안정은 수화상극으로서 대만해협정세와 지역의 평화, 안녕을 수호하려면《대만독립》을 명백히 반대하고 외부세력의 간섭을 반대하여야한다.

끝으로 대변인은 남조선측이 하나의 중국원칙을 엄격히 지키며 대만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할것을요구하였다. 래원;조선외무성홈페지



'5. 1' 절 련휴기간 장백산 관광객 연인원 4만 3849명 접대

□

'5. 1' 절 련휴기간 장백산은 도처에 경사스러운 명절분위기로 넘쳐흘렀고 관광객들의 려행의지가 높았다. 풍경구내 각 관광지가 관광객들로 가득차 관광시장이 계속 뜨거워졌다. 장백산풍경구는 총 연인원 4만 3849명의 관광객을 맞이했다.





생태관광 지속적으로 활기 띠여

'5. 1' 절 련휴기간 날씨가 좋지 않아 장백산 주봉은 하루밖에 개방되지 않았지만 련일 장백산풍경구, 홍석봉풍경구, 로수하수렵리조트, 마계풍경구, 눞은고성 등 풍경구에는 매일 대량의 관광객들이 몰려왔다. 관광객들은 청산과 백설 사이를 오가며 휴일의 여유와 흥겨운 시간을 만긱했다. 장백산폭포에서 웅장한 기세의 아름다움을 느꼈고 홍석봉풍경구에서 원시삼림 속 고목의 하늘을 찌를 듯한 아름다움을 느꼈으며 벽천하에서 래프팅체험을 하고 통쾌한 기분을 체험했는데 몰입감 있는 산수유람으로 장백산 생태관광의 열기가 치솟게 했다.



관광의 새로운 업종형태 지속적으로 인기

'사랑을 사진에 담아 우리의 려행을 더욱 의미있게', '려행의 아름다운 순간 기록', '숲속 마을을 누비는 차 향기'… 음력설 전후 장백산 무송 래프팅의 열풍에 이어 장백산 사랑테마 려행촬영, 민속려행촬영, 작은 화로를 둘러싸고 앉아 차 끓이기, 커피마시기 등이 5.1절 련휴기간의 핫플레이스가 되였다. 산과 강, 웅장함과 고요함이 이곳에서 정면으로 부딪쳤다. 장백산은 천연적이고 오래되고 아름답고 신비롭다. 동시에 이곳은 재미있고 현대적이고 세련되고 다양하다. 이곳에서 관광객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체험과 감동으로 마음속의 장백산을 정의할 수 있다.

많은 관광객들은 오늘날의 장백산관광은 천지를 구경하는 외에도 많은 독특한 관광 상품과 항목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한다. 놀이종목이 많아지고 좋은 체험이 하게 되면 자연히 '관광후에도 떠나기가 싫고 다시 오고 싶게' 된다. 이른바 '비수기'와 '성수기'의 경계도 모호해졌고 레전드코스외에 어떤 관광상품이 시즌 '다크호스'가 될지는 그 누구도 모른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三部门下达2023年学生资助补助经费预算：坚决杜绝“双重学籍”“虚报冒领”等问题

央视网消息：财政部网站5月16日消息，财政部、教育部、人力资源社会保障部发布关于下达2023年学生资助补助经费预算的通知。各地要统筹考虑辖区内不同地区经济发展水平、家庭经济困难学生分布状况等因素，在区县、院校间科学分配资助名额和资金，不能简单“一刀切”。各级教育、人力资源社会保障部门要严格规范学生学籍管理，加强对“一校两牌”、“联合招生”、“学籍异动”等情况的监管，坚决杜绝“双重学籍”等问题，保证学生资助信息真实准确，避免出现“虚报冒领”等问题。

从2023年起，财政部、教育部每年在核定各地当年普通高中国家助学金中央补助资金预算时，根据各地国家助学金上一年度实际资助面与政策规定资助面（东部地区10%、中部地区20%、西部地区30%）的差异，对中央补助资金进行清算。各地教育部门要指导学校严格落实好学生资助政策，对普通高中一年级新生要做好家庭经济困难学生认定工作，不得将原建档立卡家庭学生直接认定可以享受免学杂费等政策。同时要进一步加强对存在返贫或致贫风险家庭的动态监测，防止学生因贫辍学失学。

谨防“刷脸”技术被滥用（百姓关注）

来源：人民网

近日，家住广州的杨女士在某健身房办理会员卡后发现，该店要求会员必须使用人脸识别，才可以进入。杨女士认为，健身房侵犯了自己的个人信息，要求健身房提供除人脸识别以外的其他认证方式，并向当地消费者委员会进行投诉。当地消委会认为，经营者在处理消费者个人信息时应遵循合法、正当、必要和诚信原则，在使用人脸识别技术处理人脸信息时，应充分履行人脸信息处理的告知义务、充分保障个体的信息自决权利，并采取必要措施保障个人信息安全。在消委会调解下，该健身房及时调整顾客进入健身房的认证方式，提供了前台登记认证后进入等方式供会员选择。

近年来，人脸识别技术不断取得突破，因高效便捷而被广泛使用，正迅速融入人们的日常生活。“刷脸”解锁、“刷脸”支付、“刷脸”进小区、“刷脸”入景区……生活中的“刷脸”应用越来越常见。人脸识别技术在便利人们生活的同时，被滥用的趋势也愈发严重。尤其是在“刷脸”过程中，用户的姓名、性别、年龄、联系方式等大量信息都被采集并储存。一些经营者滥用人脸识别技术侵害自然人合法权益的事件频发，引发社会关注和担忧。……

中国法学会消费者权益保护法研究会副秘书长陈音江认为，经营者应在确保人脸信息采集和应用安全的前提下，事先告知人脸信息采集目的、使用方式和使用范围，并经用户同意，才能进行人脸信息采集和推广应用，充分保障用户的隐私权和自主选择权。还有专家建议，应设置必要门槛，改变任何企业都可以收集使用公民生物识别信息的现状，参照身份证管理，原始数据统一由国家掌控。（刘军国）

热评丨“520”不再为爱奔波 “跨省通办”惠及百姓生活

来源：央视新闻客户端



“520”，婚姻登记成为热门话题。国务院日前发布批复，将婚姻登记“跨省通办”试点扩大至北京、上海、江苏等21省区市。打破异地婚姻登记困扰，让新人不再为爱奔波，此举获众多网友点赞。

其实，不仅是婚姻登记。去年10月，国务院办公厅印发意见，要求进一步拓展“跨省通办”范围和深度，直指反映突出的异地办事难点堵点。半年多过去，“跨省通办”的成效不仅体现在纸面上，更惠及了老百姓生活的方方面面——出差身份证丢了怎么办？过去要回原籍办理，现在在居住地10分钟就能办好临时身份证；去外地看病咋报销？过去要先垫付再回老家报销，现在门诊慢特病也可以跨省直接结算；公积金还贷需要千里奔波？过去要户籍地办理，现在在居住地填写申请表、扫描资料就能远程办好业务……“跨省通办”服务更便捷，群众更舒心。

置身“流动的中国”，推动“跨省通办”，是民有所呼、政有所应的生动写照。第七次全国人口普查数据显示，2020年我国流动人口3.76亿人，其中跨省流动人口超过1.2亿人，社会流动性大增。他们每个人的教育、社保、医疗、婚育等

“生活小事”，乘以人数就是不可小觑的“民生大事”。为减轻来回奔波的负担，“跨省通办”应运而生，打通了人民群众异地办事的“快车道”，让数据多跑路、群众少跑腿，带来实实在在的便利，让老百姓获得感幸福感满满。

立足数字中国建设，推动“跨省通办”，是政务服务数字化水平不断提升的鲜明标识。聚焦国内，90%以上的政务服务网上就能办，平均承诺时限压缩了一半以上；全国一体化政务服务平台注册用户已超过10亿人，惠民便民成效显著。放眼全球，新时代十年，我国电子政务水平排名已从2012年的78位上升到2022年的43位，是上升最快的国家之一。“跨省通办”，像是一面镜子，在这里，我们照见了国家治理能力现代化的强大势能，也窥见了数字中国一往无前的巨大潜能。

从少数领域到200多项高频事项，从小范围试点、逐渐扩围到全国范围，“跨省通办”不仅涉及具体服务事项的“物理变化”，更意味着治理理念升级、流程体系再造的“化学变化”。推进“跨省通办”向纵深发展，把好事实事办在老百姓心坎，不断加强相关各方合作的广度与深度，将更多领域的数据纳入共享范围，才能彻底打破“数据孤岛”，让老百姓办事越来越方便。

全球首个！5G异网漫游是什么，如何使用？

来源：中国新闻网

办理了中国移动的手机卡，能使用中国电信、联通的信号吗？乍一听异想天开，但以后真的要实现了。

5月17日是世界电信日。据工信部消息，经工信部统筹组织协调，17日，中国电信、中国移动、中国联通、中国广电联合宣布在新疆正式启动全球首个5G异网漫游试商用。

什么是5G异网漫游？

据工信部介绍，5G异网漫游是指，当所属运营商无5G网络覆盖时，用户可接入其他运营商的5G网络，继续使用5G服务。

换句话说，假设用户使用中国移动的手机卡，去了没有中国移动信号的地方，可以无缝切换使用其他运营商的信号，反之亦然，只要四家运营商中至少有一家在当时有网络信号。

中国电信方面对中新财经表示，在工信部统一组织和指导下，四家运营商及行业上下游产业链合作伙伴在无技术经验可鉴、无成功案例可循的条件下，解决了一系列技术难题，创新提出5G异网漫游终端选网方案扩展适用场景，形成了4项异网漫游相关专利，联合编制了4项设备和终端行业标准，提出异网漫游场景下国际漫游需求标准，成功在3GPP立项并纳入GSMA《5G网络共建共享指南》。通过验证5G异网漫游业务能力和商用可行性，为5G核心网异网漫游试商用奠定了坚实基础。

如何使用、收费？

电信行业知名分析师付亮对中新财经记者表示，这项服务主要针对一些偏远地区，或者拥有独家网络地区的用户，以后不排除会扩大试商用范围。

关于如何使用？付亮称，消费者使用起来丝滑无感，几乎不会感觉到，手机会自动切换至可以使用网络，“产生5G异网漫游时，手机会出现两个运营商标识。”

具体在费用上面，付亮认为，“消费者不用考虑如何结算的事情，产生5G异网漫游时依然会优先使用消费者套餐内资源，然后运营商之间进行结算。”

工信部表示，下一步，将积极稳妥推动5G异网漫游试商用，进一步巩固提升我国5G网络服务能力，更好地为生产、生活和治理方式提质降本增效贡献力量。（记者吴涛）

今日科普

今日辟谣

来源：中国互联网联合辟谣平台



谣言：空调反复开关能省电？

真相：一直开着空调比一会儿开一会儿关更省电。由于空调在启动时的瞬时电流往往较大，如果反复启动，耗电量会相应增加，同时不利于空调的保养，对空调造成损害，影响空调寿命。（来源：科学辟谣）

热点：夏季防心梗注意这几件事！

详情：夏季是心脑血管疾病高发的季节，夏季防心梗，这几件事要注意：

1. 高温天胸闷不要拖

急性心梗约有三至四成的患者会在发病前3-7天内有心慌憋闷、胸痛、乏力等先兆症状。如果感觉胸闷，不能大意，尤其是老年人，要及时就诊。

2. 室内外温差最好别超8℃

心血管病人尤其要警惕高温及室内外的大温差，或会引发急性心梗。空调温度不宜设置太低，室内外温差最好不要超过8℃。

3. 进出空调房先在门口站一会

如果从炎热的室外进入凉爽的空调房或从空调房外出，可以先敞开房门，在门口站一会，给身体一个缓冲的时间，让心脏有个适应的过程。避免血管受过度冷热刺激引发痉挛，防止急性冠脉综合征的发生。

4. 及时补水降低血液黏度

天气炎热出汗较多，心脑血管疾病患者需及时补充水分，避免血黏度增加、流速减慢，增加血栓形成风险，诱发心绞痛、心肌梗死和脑卒中等。可在早晨起床后喝一杯温开水、晚上睡觉前喝两口温水。

5. 不要大量进食冰冷食物

不要迅速、大口喝冰镇饮料，忽然过冷刺激会引起血管收缩，诱发心绞痛甚至心肌梗死，而冷食也易引起胃部不适，影响消化。

6. 有冠心病夏季少冲凉

夏季天气炎热，但冠心病患者最好不要洗凉水澡。寒冷刺激容易诱发患者出现心肌缺血的情况，甚至导致心绞痛甚至心梗的发生。

7. 远离嘈杂稳住情绪

天气闷热、人多嘈杂，使人容易烦躁，而情绪激动失控、紧张易诱发心脑血管疾病。患有心脑血管疾病的老年人应注意保持愉悦健康的心态，当环境气温达到32℃时，减少体力活动，避免不必要的外出，尤其要避免去温度高、湿度大、人口稠密的地方。

8. 坚持服药别随意停药

降压降脂药物，同时有抗动脉粥样硬化、稳定斑块或保护血管内膜的作用。有心脑血管疾病要遵医嘱坚持服药，不要随意停药。（来源：健康时报）

提示：多人中招！警惕“门票转让”式诈骗

详情：近日，多地演出市场开启“演唱会时间”。热门演唱会、音乐节“一票难求”，买不到票的歌迷转而购买个人转售的门票。然而，这些“转让门票”背后却可能藏着诈骗套路。骗子首先利用社交平台发布有热门演唱会门票，然后利用假的链接让受害者付款。汇款之后，诈骗分子会以“票未购买成功需要退款”为由，让另一个客服再跟受害者联系，在联系过程中让受害者扫二维码再次汇款。在此提醒，在各社交平台以官方票务商标为头像、某某票务代理为用户名，主动私信询问是否有票务需求的，诈骗可能性极大。最安全的方法还是在官方网站购票。（来源：人民网科普）

국제단신

guojiduanxin

미국에서 약물중독에 의한 피해 증대

미국에서 약물중독에 의한 피해가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되고있다.

17일 미련방질병통제쎈터가 밝힌데 의하면 지난해 약물중독에 의한 사망자수가 10만 9 600여명에 달하였다.

이것은 2019년에 비해 3만 8 600여명 늘어난것으로서 지금까지의 최고기록으로 된다고 한다.(끝)

캄보쟈의 물길건설계획

캄보쟈정부가 19일 대규모물길건설계획을 승인하였다.

길이가 180㎞에 달하는 이 물길은 수도 프놈 뻰에 있는 강과 서남부의 케프지역앞바다를 련결하게 된다.

앞으로 약 4년동안 건설되게 되는 물길은 나라의 수상운수와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할것이라고 한다.(끝)

이스라엘의 무분별한 령토강탈책동)

이스라엘이 령토강탈책동에 계속 매여달리고있다.

최근 이스라엘당국은 요르단강서안지역의 북부에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그곳에 있는 정착촌을 개건하여 2005년에 철거시켰던 유태인들을 귀환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18일 팔레스티나외무성은 성명을 발표하여 이스라엘의령토강탈책동을 《두개국가해결책》과 유엔결의들의 리행을 가로막는 무분별한 행위로 단죄규탄하였다.(끝)

아랍국가련맹 수뇌자회의 진행

제32차 아랍국가련맹 수뇌자회의가 19일 사우디 아라비아의 지다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아랍세계의 안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역 및 국제문제들이 토의되였다.

아랍국가련맹성원국지위가 중지된이래 처음으로 수리아대통령 바샤르 알 아싸드가 수뇌자회의에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아랍세계가 단합하여 지역문제들을 해결할것을 호소하는 지다선언이 채택되였다.

선언은 수리아의 아랍국가련맹복귀를 환영하면서 수리아가 위기를 해결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것이라고 밝혔다.

선언은 팔레스티나문제해결을 위한 평화발기,수단에서의 긴장상태완화,예멘정세의 안정을 위한 대책 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선언은 아랍나라들의 내정에 대한 외부의 간섭을 배격하고 국가의 관할밖에서 조직되는 무장단체 등에 대한 일체 지원을 중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끝)

이딸리아에서 무더기비와 큰물

이딸리아의 에밀리아 로마냐주에서 16일과 17일 무더기비가 내리면서 큰물이 났다.

주에서는 48시간동안에 500㎜이상의 비가 내렸으며 이것은 년평균비내림량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것이라고 한다.

그로 하여 강뚝이 터지고 8명이 사망하였으며 1만 2 000명이 소개되였다. 도로와 철길이 막히고 많은 농경지가 물에 잠겼다.

주당국은 이번 무더기비와 큰물은 이전에 있어본적이 없는 대재난이라고 우려를 표시하였다.(끝)

일본에서 돌림감기에 의한 집단감염사태 또다시 발생

일본에서 돌림감기전파상황이 악화되고있는 가운데 오이다시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집단감염사태가 발생하였다.

이 학교에서는 지난 9일 체육경기가 있은 후 11일부터 발열과 기침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였으며 16일까지 도합 497명의 학생과 일부 교원들이 감염되였다고 한다.(끝)

중국외교부 일본수상의 도발적인 발언을 규탄

16일 중국외교부 대변인 왕문빈이 기자회견에서 일본수상의 도발적인 중국관련발언을 규탄하였다.

그는 중국과 로씨야가 실력에 의거하여 현 상황을 일방적으로 개변시키려 한다고 걸고든 일본수상 기시다의 최근발언을 배격하면서 일본이 진영들사이의 대결을 선동하며 지역의 리익을 해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일본집권층이 침략력사를 극력 미화분식하고 군국주의망령을 부르며 《대만의 유사시는 일본의 유사시》라고 야단법석하고있는데 그것이야말로 현 상황을 개변시키려는 기도가 아닐수 없다고 그는 까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이 력사의 흐름을 되돌려세우려는 헛된 시도를 하지 말고 저들의 군국주의침략력사를 성근하게 반성할것을 그는 강력히 요구하였다.(끝)

까메룬에서 홍역전파

까메룬에서 최근 홍역이 퍼져 피해를 입고있다.

14일 이 나라 보건당국이 밝힌데 의하면 홍역환자수가 4 677명으로 늘어났으며 그중 18명이 목숨을 잃었다.

주요원인은 지난 몇년동안 어린이들에게 왁찐을 제대로 접종하지 않은데 있다고 한다.

정부는 이 전염병의 전파를 억제하기 위해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전국적범위에서 예방접종을 진행할 계획이다.(끝)

수단에서 무장분쟁으로 민간인피해

수단에서 최근 무장분쟁이 악화되여 수많은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고있다.

14일 유엔인도주의사업조정사무소가 밝힌데 의하면 4월중순부터 수도하르툼과 그 주변지역들에서 정부군과 반대파세력사이의 무장충돌이 지속되여 676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고 5 576명이 부상당하였다.

또한 93만 6 000여명의 피난민이 발생하였으며 그중 약 20만명은 이웃나라들에 넘어갔다.

특히 하르툼의 주민들이 심각한 식량부족으로 고통을 겪고있다.

올해에 이 나라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약 1 580만명이 인도주의원조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될것이라고 한다.(끝)

앙골라의 생활용수문제해결노력

앙골라의 북부지역에 최근 생활용수공장이 새로 건설되였다.

공장은 시간당 720㎥의 생활용수를 생산하여 33만 4 000여명의 주민들에게 공급하게 된다.

공장은 현지주민들의 부족되는 물문제를 해결하고 설사증과 같은 전염병을 막는데 크게 이바지하게 될것이라고 한다.(끝)





5. 1절의 유래

전 세계 근로자들의 국제적명절인 5. 1절은 로동자들의 파업으로부터 유래되였다.

1886년 5월 1일 미국의 도시 시카고에서 로동자들이 파업을 일으켰다. 파업에 참가한 로동자들은 8시간로동제를 실시할데 대한 구호를 들고 투쟁하였다.

당황망조한 지배층은 파업에 참가한 로동자들에게 무차별적이며 류혈적인 탄압을 가하고 파업투쟁을 지도한 로조지도자들을 체포하였으며 극형과 중형을 들씌우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1889년 7월에 진행된 제2국제당창립대회에서는 로동계급의 자주권을 찾기 위하여 용감하게 싸운 시카고로동자들의 의로운 투쟁을 기념하여 매해 5월 1일을 전 세계 로동계급의 국제적련대성과 전투적위력을 시위하는 날로 정하였다.

이때부터 전 세계 근로자들은 이날을 자기들의 국제적명절로 기념하고있다.

그때로부터 백수십년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세계적범위에서 볼 때 참다운 로동의 권리와 생존권을 지키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려는 근로대중의 념원은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이날이 근로자들의 명절이 아니라 분노를 터치는 날, 항거의 날로 되고있다.

오직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여있고 모든것이 그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제도에서만 이날이 근로자들의 참다운 명절로 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해마다 이날이 오면 당과 정부의 간부들이 사회주의건설의 주요전구들을 찾아가 무한한 애국적열의와 헌신적노력을 바쳐가는 근로자들을 열렬히 축하해주면서 그들과 함께 명절의 한때를 보내고있다.

이 하나의 국제적명절을 통하여서도 사람들은 근로인민의 삶을 지켜주고 가장 값높이 빛내여주는 품은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라는것을 절감하게 된다.





이런 8가지 식습관, 당신의 면역력을 떨어뜨려!

1. 아침식사 거르기

아침을 장기간 먹지 않으면 영양실조, 면역력저하, 조기 로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가지 아침식사 조합 추천:

· 우유 한잔, 닭알 하나, 통밀빵 두조각, 도마도 하나.

· 두유 한잔, 소고기와 상추를 넣은 구운빵 하나.

여기에 호두, 잣 등 견과류를 한줌 정도 더 하면 더욱 완벽해진다.

2. 한끼 굶고 한끼 배부르게 먹기

인체의 장 면역기능은 24시간 주기의 리듬을 가지고 있어 식사시간을 예측할 수 없으면 장 면역체계가 무력해져 활발해야 할 때 활발해지지 못하고 휴식해야 할 때 과도한 긴장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장의 만성염증을 유발하기 쉽고 따라서 면역력도 저하된다.

3. 단백질을 너무 적게 먹기

단백질은 면역세포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섭취가 부족하면 면역세포가 제때에 재생 및 증식하지 못해 면역력이 저하된다.

4. 주식을 너무 적게 먹기

탄수화물이 풍부한 주식은 신체 에너지의 주요 공급원이며 단백질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주식을 너무 적게 먹으면 많은 량의 단백질이 장작처럼 타면서 에너지를 공급하게 되여 시간이 지나면 탈모, 피부상태 악화, 면역력 저하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5. 물을 너무 적게 마시기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면 대사 로페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체내에 물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저하된다.

건의: 온화한 기후조건에서 건강한 성인의 경우 하루 총 음용수량은 1500~1700ml여야 한다. 소량으로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고 매번 약 200ml의 끓인 맹물을 마시는 것이 가장 좋다.

6. 소금을 너무 많이 섭취하기

과도한 염분은 혈압조절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내 세균총을 교란시켜 호중구(일류 면역세포)가 박테리아를 죽이는 능력을 현저히 감소시키고 호중구 생성량을 감소시켜 전신 면역기능을 저하시킨다.

7. 당류 음식을 너무 많이 먹기

당이 들어간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면역체계 기능이 저하되고 항감염능력이 저하된다.

8. 술을 너무 많이 마시기

과도한 음주는 간을 손상시키고 많은 량의 비타민 B를 소모하며 면역력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김홍화)





음료 한병, 45가지 질병 위험 증가! 적절한 섭취량→

□

□2023년 4월, 사천대학 화서병원의 연구팀은 《영국의학저널》(BMJ)에 최신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고당음료섭취는 45가지 질병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 그중에는 비만, 통풍, 당뇨병 등 내분비 및 대사질환, 관상동맥질환, 중풍, 고혈압 등 심혈관질병과 간암, 췌장암, 유방암 등 다양한 암이 포함된다.

설탕이 함유된 음료를 장기적으로 마시면 위해가 얼마나 클가?

2022년 7월, 중국질병예방통제중심 주맥경 등이 《유럽공공보건잡지》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9년까지 30년간 우리 나라 주민의 설탕함유 음료 과다섭취로 인한 사망률은 거의 2배로 증가했고 설탕함유 음료 과다섭취로 인한 사망률도 35% 증가했다고 한다.

데터에 따르면 2019년 우리 나라 설탕함유 음료로 인한 사망자수는 4.66만명에 달하는데 이는 1990년에 비해 95% 증가한 것이다. 설탕함유 음료로 인한 남성사망자수와 지난 30년 동안의 사망자수 증가폭은 모두 녀성에 비해 높았다. 설탕함유 음료의 과다섭취는 심혈관질병 및 당뇨병 사망에 대한 부담히 특히 크다. 지난 30년 동안 허혈성 심장병과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각각 95%와 94% 증가했다.

설탕함유 음료를 마시면 절대 이 량을 초과하지 말아야!

사천대학 화서병원의 연구팀은 매주 설탕함유 음료 섭취량을 1인분 미만(즉 200~350ml)으로 조절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즉 한주일에 설탕함유 음료 한병(335ml)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결국 이런 음료를 마실때 시원한 것은 입안의 감각일 뿐 신체의 다른 부분은 소리없이 항의하고 있는 것이다.

인민넷-조문판

《아리랑》의 어원



지금 풍치수려한 대동강의 릉라도 5월1일경기장에서는 공화국창건 60돐을 맞으며 더욱 새롭게 창작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아리랑》이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다.

《아리랑》!

《아리랑》의 어원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아리랑》은 예로부터 그 어원이 여러가지이다.

노래 《아리랑》에서 많이 공통적으로 쓰이는 표현은 《아리랑》, 《스리랑》,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라고 볼수 있다. 이러한 표현에서 《아리랑》을 볼 때 《아리》는 두가지의 뜻으로 해석되고있다.

첫째로, 《아리》는 《고운》, 《곱다》, 《아름다운》 또는 《아름답다》는 뜻이다. 그 흔적은 현대조선말에서 《아릿다운》으로 나타나고있다. 《랑》은 《님》이라는 뜻이다. 그

러므로 《아리랑》은 《고운 님》을 의미하고 있다.

둘째로, 《아리》는 《사무치게 그리운》의 의미를 담고있다.

《아리랑》에서 《랑》은 《님》이라는 뜻으로 되지만 세나라시기에는 젊은 남녀를 모두 표현하였다. 《아리랑》노래의 다른 표현으로서 《스리랑》은 《마음이 쓰리도록 그리운 님》이라는 뜻이다.

《아리랑》노래의 표현에서 《아리랑고개로 넘어간다》는 《곱고 그리운 님이 고개를 넘어간다》는 뜻이다.

옛날 봉건사회에서 마을공동체의 활동범위를 차단하는것은 《고개》였으므로 《고개》를 넘어가는것은 다시 만나기 어려운 《리별》을 의미하였다.

그러므로 《아리랑고개로 넘어간다》는것은 《곱고 그리운 님과의 가슴아픈 리별》을 의미하였다.

이와 같이 《아리랑》은 어원적의미로 볼 때 남녀사이의 사랑에 관한 감정을 표현한것이였지만 외세에 의한 수난의 력사를 거치면서 우리 민족이 소원하는 모든것,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으로 승화되였다.

황 진 이

(1516—?)

리조전기의 녀류음악가, 시인. 호는 명월, 다른 이름은 황진랑이다. 아버지는 개성에 살던 량반 황진사의 아들이고 어머니는 개성의 빈한한 평민의 딸 진현금이였다. 황진이는 태여난 때부터 봉건적신분차별로 하여 불행하였다. 진현금과 황진사의 아들이 서로 남모르게 사랑하여 자체결심에 따라 결혼한 후 황진이를 낳은것으로 알려지고있다. 황진사가 자기 아들이 가난한 집의 딸과 결혼한것을 완강히 반대하여 강제로 갈라놓음으로써 젊은이들의 사랑은 파탄되고말았다. 진현금은 봉건적신분차별로 말미암아 사랑의 비극을 겪은 원한을 안은채 황진이를 낳아기르면서 일생을 독신으로 지냈다.

어려서부터 용모자태가 보름달처럼 환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인정도 많았을뿐아니라 문학과 예술에 대한 자질이 뛰여났던 황진이는 어머니에게서 배워 점점 성장하면서 절색의 미인으로, 가야금 잘 타고 노래 잘하는 노래명창으로, 글에 유식하고 시조와 한자시에도 재능있는 시인으로 알려지게 되였다.

봉건적인 신분제도는 황진이의 출생과 성장에만 비극적운명을 강요한것이 아니라 그를 끝내 기생의 비참한 운명에 몰아넣었다. 황진이는 기생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머니처럼 가정도 이루지 못한채 안정되지 못한 생활을 하다가 40살을 전후한 젊은 나이에 생을 마쳤다.

황진이는 봉건적신분차별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인격적존엄을 지키여 덜된 량반들과 상층승려들의 오만한 행동과 비행을 조소폭로하였으며 시가창작에서 뛰여난 재능을 나타내였다.

황진이는 과연 어찌하여 기생이 되였던가.

황진이는 홀어머니의 슬하에서 곱게 자라 어느덧 초봄의 매화송이처럼 피기 시작했다. 아들 가진 부모들이 탐낼만큼 착실하였고 총각들이 오금을 못쓸 지경으로 황홀하였다.

어느날 황진이네 집앞으로 다가오는 구슬픈 상여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까닭인가 하여 부엌문으로 내다보는 현

금이에게로 늙수그레한 상두군 한사람이 걸어들어왔다. 저멀리 있는 건너마을 농사군이였다.

《저 상여는 우리 마을 부자집 머슴살던 총각의것이올시다.》

이렇게 허두를 뗀 늙은 상두군은 딱한 사정의 내용을 설명하였다.

…이웃마을 머슴군총각은 일잘하고 마음씨가 무던한 사람이였다. 일찌기 부모를 잃은 그는 남의 집 머슴을 살면서 잔뼈가 굳어졌는데 혈혈단신이다나니 마음을 의지할 사람이 몹시도 그리웠다. 그는 건너마을 현금의 딸 황진이가 마음에 들었다. 짝사랑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고아로 자라서 머슴군이 되여 눈치밥만 먹다보니 총각은 마음속으로 짝사랑을 하면서도 입밖에 내지 못하고 저혼자 속으로 끙끙 앓았다. 날이 가고 달이 지날수록 짝사랑은 가슴속에 한숨을 피워올렸고 한숨은 마침내 상사병을 일으켰다. 머슴방사람들이 산과 들에서 좋다는 약초는 다 캐다가 달여먹였으나 총각은 끝내 일어서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다. 그는 눈을 감으면서 이웃들에게 《내 시신을 황진이네 집앞을 지나 그 집이 바라보이는 양지바른 산턱에 묻어달라.》고 하였다.

웃방 미닫이문짬으로 황진이의 흐느낌소리가 새여나왔다. 이윽고 정신을 수습한 현금이가 상두군에게 물었다.

《어쨌으면 좋겠나요?》

늙은 상두군이 거북하게 말을 뗐다.

《옛날부터 상사병에 죽은 사람을 그냥 보내면 앙화가 든다고 했수다. 좀 딱한 부탁같지만 이댁 처녀의 수건이나 치레거리라도 하나 주어서 떠나보내시우.》

《그거야 어떻게… 그보다 내가 술상 하나 성의껏 차려드릴테니 그것이나 대접해보냅시다.》

현금이가 정신없이 허둥지둥 술상을 차려서 상여앞으로 내보내는데 웃방문이 살며시 열리더니 황진이가 무슨 흰천을 들고나왔다.

아름다운 그의 얼굴에는 찬기운이 돌고 맑은 눈에 물기가 어려있었다.

모두가 영문을 몰라 멍청하니 바라보고있는 가운데 황진이가 상여앞으로 다가가더니 흰천을 펼쳤다. 천이 아니라 속적삼이였다.

황진이는 입고있던 속적삼을 벗어서 들고나온것이다. 숫처녀의 그런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행실이 소문나면 자기가 어떻게 된다는것을 각오한 황진이였다. 황진이는 속적삼을 펼쳐서 관우에 덮어주었다. 현금이가 부엌문앞에서 푹 꼬꾸러졌다. 황진이는 입술을 야무지게 깨물고 어머니가 차려서 내보낸 상에서 주전자를 들어 잔을 쳤다. 그다음 절을 했다.

상두군들이 저마다 옷소매로 눈물을 닦고 상여를 멨다. 구슬픈 상여소리가 저쪽 산기슭을 향해 멀어져갈 때까지 까딱않고 서있던 황진이의 입에서 심장을 쥐여짜는듯 한 아픔을 실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렇게 갈바에야 왜 살아생전 나에게 한마디 말이라도 하지 못했소. 아— 이년의 운명이 어찌 이다지도 기구하단말이요.》

황진이는 자기의 운명이 기구한것을 한탄하고 불쌍하게 죽은 총각을 애닲게 생각하였으나 그 운명, 그 슬픔이 젊은 남녀의 사랑마저 이지경으로 만든 량반세상의 탓인줄은 미처 깨닫지 못하였다.

자기를 짝사랑하다가 상사병으로 죽은 총각의 운명에서 받은 충격이 너무나 커서 그리고 자기같은 녀자가 시집을 간들 얼마나 행복하게 살수 있으랴 하는 슬픔이 하도 가슴을 우벼서 황진이는 기생이 되였던것이다. 덜된놈의 량반세상에 태여난 자신을 한탄하면서…

황진이는 송악산 안화사로 찾아갔다. 지족선사를 찾아가는 길이였다.

황진이가 안화사에 가보니 소문에 듣던바 그대로 지족선사는 법당에 앉아서 념불을 외우고 있었으며 불공을 드리려온 각양각색의 많은 사람들이 부지런히 들락날락하였다.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드리는 대가집 마님들, 돈을 벌게 해주십사 하고 소원하는 배뚱뚱이들, 아이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비는 장거리 녀인들, 참으로 천태만상이였다. 황진이도 그들속에 끼여서 잠자리방 한칸을 정해놓고 자기가 불공드릴 차례를 기다렸다. 그는 세상만물이 깊이 잠든 한밤중에 첫 불공을 했다. 황진이의 소원은 기생생활이 하도 고통스럽고 외로워 마음을 의탁할데 없어서 절간을 찾아왔으니 지족선사의 제자가 되여 부처님을 믿고 살게 해달라는것이였다. 그는 이날부터 지족선사가 불공을 드리면 함께 불공하고 선사가 벽을 마주하고 앉아 도를 닦으면 저도 옆에 앉아서 도를 닦았다. 하지만 황진이는 진짜 녀승이 되려고 온것이 아니라 이름있는 중과 사귀고싶어 온것이니 불공을 하고 참선(선도를 닦는 일)을 하고난 다른 시간에는 절간주변의 산천경치를 둘러보면서 자연을 감상하고 노래도 부르군 하였다.

황진이가 이러는 사이에 지족선사의 심중에는 천지파동이 일고있었다. 이 중은 《생불》이라고 소문을 냈지만 실지는 설익은 중이였다. 그는 물론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불공드리려온 녀인들에게 지분거리는 막놈의 중과는 달라서 여태까지 그런 추문은 없는 사람이였다. 그런데 황진이를 만난 순간부터 그의 마음에 동요가 생기기 시작했다. 황진이가 천하절색인데 먼저 놀랐다. 이런 절세미인은 요염하고 간사하기 일쑤인데 하루이틀 지내보아도 황진이는 요염하거나 간사한것이 아니라 의젓하고 고상하였다. 사람들이 말하는 안팎미인이였다. 호걸남아라면 누구나 반할만 한 녀인이였다. 지족선사는 난생 처음보는 이 미인이 옆에 앉아서 같이 불공을 드리거나 도를 닦을 때면 가슴이 후득거리였고 눈길이 녀인에게로 끌렸다. 선사의 마음이 이렇게 태질하면서 그것을 눌러버리려고 애쓰는 심정과 누를수 없는 욕망간의 싸움이 벌어지게 됐으니 그것이 행동에 나타나지 않을수 없었고 그 행동은 남녀간의 심리에 예민한 황진이에게 감촉되지 않을수 없었다. 황진이는 지족선사에게서 환멸을 느끼게 되였다. 자기가 알고있는 서경덕, 소세양, 리사종 같은 사나이를 불도들속에서도 찾고싶었던 자기의 기대가 무너지는것이 허전했다. 다음날 밤중에 황진이는 참선하고있는 지족선사옆에 가서 앉아 도를 닦았다. 밤이 깊어지고 인적없는 고요가 방안에 깃들었다. 황진이는 졸음이 왔다. 어제까지는 졸음이 와도 불교계의 참된 인간을 사귀려는 기대로 그것을 이겨냈다면 이 밤은 겨루기심사가 작용하여 졸음을 핑게하고 슬그머니 옆으로 곤드러졌다. 그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꼬꾸라져서 잠든척 하였다. 한초, 또 한초 고요속에 시간이 흘렀다. 드디여 지족선사가 인욕의 마지막계선을 넘어서고야말았다. …

실망과 환멸이 어찌나 심하고 격렬하였던지 황진이는 날이 밝기를 기다리지 않고 한밤중에 절간을 나서서 집으로 돌아오고말았다.

그후 개성일대에서는 덕물산을 비롯한 여러 민속놀이터들에서 《만석중놀이》라는 인형놀이가 생겼다고 한다. 옷을 벌거벗은 중이 제손과 발로 가슴을 치는 인형놀이인데 하루저녁에 《생불》로부터 파계승이 된 만석중을 조소하는 내용이라고 한다.

조선말의 문법구조



조선말의 문법적인 특성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수많은 토들로 아주 다양한 문법적의미가 치밀하게 나타나고있는 점이다.

우리 말에서 토는 오늘날 보통 쓰이는것만도 300개가 넘는다. 기본적인 일부 토들은 오랜 옛날에 발생하여 오늘까지도 견인력있게 쓰이지만 적지 않은 토들은 지난날 쓰이다 없어지기도 하였고 또 끊임없이 새로 산생되여 보충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조선말 토는 지난날 쓰이던것까지 합치면 그 수가 더 많다. 토는 필요에 따라 말줄기에 잇달려 많이 붙을수 있으며 그 차례는 일정하다. 그리고 일단 붙었다가도 불필요하면 그만큼 떼내도 말이 될수 있는 자유로운 구조를 가지고있다.

토들의 다양한 역할로 해서 조선말에서는 격, 수, 상, 존칭, 시칭, 말차림, 법을 비롯한 여러 문법적범주들이 발전하여있다.

조선말에 고유한 토

격토 (26개): 가, 께서, 을, 를, 의, 에, 에게, 에서, 에게서… .

도움토 (43개): 는, 도, 만, 야, 부터, 까지… .

복수토 (1개): 들 .

맺음토 (193개): 다, ㄴ다, ㅂ니다, 게, 요, 소, 라, 렴… .

이음토 (185개): 고, 서, 며, 나, 되, 면, 니… .

규정토 (6개): ㄴ, 는, 은, ㄹ, 던… .

상황토 (9개): 게, 도록, 듯이… .

시간토 (5개): 았, 었, 였, 겠, 댔 .

존경토 (2개): 시, 으시 .

상토 (11개): 이, 히, 기, 리, 우, 구, 추… .

바꿈토 (5개): 이, 기, ㅁ…

그 다양한 토들은 정연하고 정밀하게 분류되고있다. 특히 서술토가운데서는 《맺음-이음-맞물림》의 대립이 뚜렷하며 그에 따라 말을 끊고있는 관계가 어느 언어보다도 선명하다. 세계의 많은 언어들을 보면 동사의 형태에 붙는 이음형이 발전하지 못하였기때문에 그와 대치를 이루는 맺음형 또한 분명하지 못하다. 조선말 서술형에서 이음형이 발전한것은 중요한 특성의 하나로 된다.

조선말문법에서는 또한 명사, 수사, 대명사들로 체언이 이루어지고 동사, 형용사들로 용언이 이루어져서 그것들의 문법적특성이 확연히 둘로 갈라진다.

토도 크게 두개의 류형으로 갈라져서 대상토는 주로 체언에서 쓰이고 서술토는 주로 용언에서 쓰이는 특성을 가지고있다.

한편 용언에서도 대상토가 쓰이고 체언에서도 서술토가 쓰이면서 표현을 풍부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 바꿈토가 리용되는것도 조선말문법구조의 특성이다. 그밖에 조선말은 례의범절을 나타내는 문법적형태들이 아주 치밀하게 째여있고 그것들이 문법적관계만을 나타내는것이 아니라 이러저러한 뜻빛갈을 가지면서 양태성, 정서성들을 표현하는데도 복무하는 특성을 가지고있다.

토는 입말체, 글말체, 중성체의 구분이 있어

서 그 쓰임이 또한 다양하다. 조선말은 문장구조도 자기의 고유한 민족적특성을 가지고있다.

조선말에서 문장은 토가 발전하였으므로 매우 정밀하게 짜이며 그 표현성이 아주 다양하다.

문장은 성분의 차례에서도 특징이 있다. 문장성분의 정상적인 차례는 주어가 술어보다 앞에 오고 규정어는 언제나 규정받는 말보다 앞에 오며 상황어는 언제나 상황을 설명받는 말보다 앞에 오기때문에 결국 술어가 문장의 끝에 오면서 앞에 온 주어, 보어, 규정어들을 걷어안고 문장전체를 결속짓는 역할을 한다.

장기간의 음악훈련, 로인의 언어감지능력 증강시켜



어떤 나이든 빨리 악기를 하나 배우기 시작하고 노래까지 배우기 시작하면 대뇌가 더 느리게 늙을 수 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음악을 배운 적이 없는 로인이 단기 음악 훈련을 받았더니 언어가공능력이 어느 정도 향상되였다고 한다.

대뇌는 인체에서 가장 먼저 로화가 시작되는 기관중 하나로 대뇌의 로화는 종종 다양한 인지장애를 동반하며 그중 청력저하는 로인의 삶의 질에 비교적 뚜렷한 영향을 미친다. 과거 연구에 따르면 로인의 언어감지능력은 일반적으로 소음 환경에서 떨어진다. 시끄러운 환경에서 로인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데 이는 로인의 사회적 교제와 정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치매 조기 발병까지 유발할 수 있다.

긍정적인 생활방식은 이러한 상황의 발생을 지연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연구에 따르면 음악훈련은 시끄러운 환경에서 로인의 언어감지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는 음악훈련이 항로화 방면에서 잠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일전에 중국과학원 심리연구소 두억연구원팀은 기능자기공명연구를 실시해 로인 음악가가 기능유지와 기능보상이라는 두가지 상호 의존 메커니즘을 채택해 소음 환경에서 시청각 언어 지각의 로화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립증했으며 장기적인 음악훈련이 로인의 언어감지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증명했다. 관련 성과에 관한 론문은 4 월 26 일 《과학의 진전》 표지론문으로 발표됐다. / 인민넷





조선의 민족료리

소꼬리해삼탕



▶ 재료

소꼬리 200g, 해삼 50g, 붉은 고추 10g, 양파 10g, 국물 500g, 다진 파 5g, 다진 마늘 2g, 간장 3g, 기름 10g, 맛내기 0.5g, 소금 2g, 후추가루 0.5g

▶ 만드는 방법

1. 남비에 소꼬리, 양파, 소금을 두고 푹 삶는다. 소꼬리가 푹 삶아지면 절반 쪼개여 뼈를 뽑아낸 다음 토막으로 썬다. 해삼은 두쪽으로 가른다. 붉은 고추는 절반 갈라 씨를 턴 다음 송송 썬다.

2. 남비에 기름을 두르고 다진 파를 볶다가 소꼬리와 해삼, 국물을 붓고 끓인다. 한소끔 끓으면 송송 썬 붉은 고추를 두고 소금, 맛내기, 간장, 후추가루, 다진 마늘을 넣어 맛을 들인 다음 그릇에 담아 낸다.

소고기밤은행찜



▶ 재료

소고기 1kg, 무우 100g, 밤 30g, 은행 30g, 송송 썬 파 50g, 간장 5g, 참기름 5g, 다진 마늘 10g, 실고추 0.5g, 후추가루 1g, 소금 6g

▶ 만드는 방법

1. 소고기는 토막내여 남비에서 기름을 걷어내면서 삶는다. 여기에 무우를 큼직하게 썰어넣고 소고기가 무를 때까지 끓인다. 은행은 닦아서 껍질을 벗긴다.

2. 소고기가 익으면 건져 간장, 참기름, 다진 마늘, 후추가루, 소금을 두어 양념을 한다.

3. 탕그릇에 양념한 소고기를 담고 은행, 밤을 넣은 다음 증탕한다.

4. 고기가 푹 무르면 그릇에 담고 송송 썬 파, 실고추로 고명하여 낸다.

심양시모란문화예술양성쎈터

沈阳市牡丹文化艺术培训中心





艺术的摇篮　배움의 요람

심양시모란문화예술양성쎈터는 예술의 요람입니다.
심양시모란문화예술쎈터는 조선과 문화예술을 교류하면서 조선평양음악대학을 졸업하고 오래동안 예술에 종사한 조선의 우수한 선생님들을 초청하여 학생들을 지도하고있습니다.
모란문화예술양성쎈터에서 배운 많은 학생들이 전국예술콩클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本中心与朝鲜文化艺术部门进行长期交流。聘请了毕业于朝鲜平壤音乐大学，从事多年艺术工作的优秀教师。在朝鲜教师的 精心指导下， 本中心很多学员在全国各种文艺比赛中获得了优异成绩。

地址：沈阳市皇姑区三江街3-2

电话：024-86426512

13516032172

